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구독 후원 상담
02-2004-8212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1월 21일)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 선출 '본격화'

총추위원 27명 위촉… 위원장 혜일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과 선출 일정이 완료되면서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한 달여의 선거 여정이 시작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12월 6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총장후보자추천위원(이하 총추위원) 27명을 위촉했다.

규정에 따르면 총추위는 종단, 사회인사, 교원, 직원, 동문, 대학학부, 대학원에서 추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총추위원은 △혜일 · 오심 · 성화 · 서봉 스님(조계종 대표) △김영일 · 임명배 · 김봉석(사회인사 대표) △허남결 · 노헌균 · 송민규 · 오미영 · 이재철 · 임성묵 · 장원희 · 안종석 · 이승철 · 양윤호 · 이무열 · 윤상호

총추위 첫 회의… 일정 확정해

12월 13~14일 총장 후보 접수

26일 소견발표, 27일 후보 선정

(교원 대표) △박세훈 · 김종윤 · 장기복 · 김계철(직원 대표)△박대신 · 문선배(동문 대표) △안현민(학부 대표) △김정도(대학원 대표) 등 총 27명이다. 총추위원장에는 혜일 스님이 추대됐다.

추대 직후 혜일 스님은 "조계종립 동국대는 불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를 이끌 총장을 선출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영광이다"며 "학교 발전을 이끌 능력있는 인물을 제20대 총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총추위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총추위는 1차 회의를 통해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장 초빙 공고가 이뤄지며,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 지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12월 15일 열리는 총추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원자 자격심사가 이뤄지며, 19일 총추위 2차 전체회의에서는 지원자 자격심사 의결과 이사회에 올릴 최종 후보자수를 확정한다.

12월 26일 오전 10시 로터스홀에서 열리는 총추위 3차 전체회의에서는 후보자 소견발표(PPT)와 총추위원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이 과정은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최종후보자 선정 및 이사회 추천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총추위 4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차기 총장 후보자 누가 뛰나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 일정 전반이 확정되며 출마 후보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12월 7일 현재 거론되는 차기 총장 선거에 출마 후보군은 △김종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성이 현 총장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김종욱 교수는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단 등을 이끌며 한국불교학의 세계화 대중화 불사에 매진해 종단 안팎으로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박명호 교수와 송일호 명예교수는 지난 총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건학이념 정립 공약으로 당시 박명호 교수는 불교대학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송일호 명예교수는 불교한류문화원 설립 등 불교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개발을 내세운 바 있다.

윤성이 현 총장은 건학위원회 원력에 발 맞춰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으며,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 달성을 이끌었다. 임중연 교수는 버클리대학에서 공학박사를 받은 재원으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찰행정학부, 법학과 등 초학제적인 연구진으로 구성된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Googi 개발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최응렬 교수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동국대에서 받은 '동국인'으로 사회과학대학 · 행정대학원 부학원)장(2007~2011), 대외협력본부장(2012~2015) 등을 역임했다.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서울 종로 조계사에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소원의 탑이 우뚝 섰다. 조계사는 12월 8일 '2023년 소원의 탑 개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소원의 탑은 2023년 계묘년에 맞춰 '희망찬 새해로 토끼처럼 깡충깡충'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보름법회를 맞아 조계사를 찾은 신도들과 시민들은 슬로건이 적혀있는 소원지에 자신의 내년 소원을 적어 소원탑에 걸었다. 사진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왼쪽)이 선재어린이집 원아들의 소원지를 함께 걸어주고 있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주요 불사 지원할 종책특보단 구성

진우 스님, 12월8일 임명식

종책특보단장엔 성행 스님

종책 · 복지 등 8개 분야

출 · 재가 보좌관 임명돼

산하기관 교역직 임명식도

민추본 본부장에 태효 스님


성행 스님(특보단장)


만당 스님(종책특보)


태원 스님(복지특보)


탄탄 스님(문화특보)


보관 스님(정무특보)


종원 스님(군종특보)


현무 스님(사회특보)


정관 스님(비구니특보)


태효 스님(민추본 본부장)


김상기(종책특보)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과제와 불사를 지원할 종책특보단 구성이 완료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책특보단장과 8개 분야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책특보단장 성행 스님을 비롯해 종책특별보좌관 만당 · 복지특별보좌관 태원 · 문화특별보좌관 탄탄 · 정무특별보좌관 보관 · 군종특별보좌관 종원 · 사회특별보좌관 현무 · 비구니특별보좌관 정관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종책특보에는 김상기 씨가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임명된 특보 스님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륜과 지혜를 갖추신 분들"이라며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주요 종책 과제와 중요 불사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성행 스님은 "특보단이 37대 집행부와 함께 주요 불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만당 스님은 "종단이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특보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원 스님은 "복지관 운영 경험을 최대한 살려 종단 복지 종책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으며, 탄탄 스님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관 스님은 "종회의원과 집행부 간의 정책적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종원 스님은 "군승 수급과 출가자 문제 등 현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무 스님은 "37대 집행부는 한국불교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발자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정관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종단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종단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에 대한 임명도 12월 8일 진행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진우 스님은 신임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태효 스님, 사무총장 덕유 스님과 불교신문사 신임 사장 삼조 스님, 주간 원돈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지안 스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정안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범하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우 스님은 "지금은 북한과의 경색된 국면을 해소하려면 불교가 물꼬를 터야 한다. 그만큼 민추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임 본부장 스님께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불교신문은 종단 기관지로서 전통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는 불교언론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신성민 기자**



혜일 스님 취임 일성…"출가자 증가 핵심 목표"

조계종 교육원, 12월 7일 제9대 원장 취임식 개최

"미래세대 소통…출가정신 알릴 것"
시대 맞는 교육 등 '3대 기조' 발표
진우스님 "출가자 확산 범종단 문제"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7일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 취임식을 개최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사회가 승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엄격해지고, 승가가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는 다양해지고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승가교육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9대 교육원은 출가자 증가를 핵심 목표로 삼겠습니다."

제9대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의 취임 일성은 '출가자 증대'였다. 한해 출가 인원이 100명 이하로 감소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출가자 증가 종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3대 종무기조를 발표했다. 이날 스님이 밝힌 3대 기조는 △출가자 증가 △전통 계승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학인 교육 △다각화된 배움을 통한 지계 및 수행 풍토 조성 등이다.

특히, 혜일 스님은 미래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출가 정신을 바로 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과 군장병 등, 미래 세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다"면서 "물질은 넘쳐나지만 정신은 가난해지고 마음은 병들어가는 시대에 출가자의 수행 정진이 시대를 선도하는 진리의 등불이며, 진정한 대자유의 길임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혜일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양질의 불교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미 · 사미니 스님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을 통해 포교 현장에서 신뢰받는 승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원과 포교원, 중앙종무기관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불법 홍포의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수행하는 승가, 함께하는 승가, 미래를 여는 승가의 길에 교육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출가자 증가를 위한 노력을 제9대 교육원에 요청했다. "출가자 감소는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불교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출가가 새로운 인생의 지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가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출가를 권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가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인연들의 중심돼 혁신적으로 승가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 교육원장 스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변화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제9대 교육원이 열어갈 시대화 교감하며 전법 교화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승가 인재 양성의 미래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축사에서 "조계종 승가교육의 목적과 이상이 종지종통을 뿌리로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숭고하고 영롱한 수행자는 창출될 것"이라며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수행자를 배출하는 수도원 체재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문화부장, 기획실장, 종책특보단장, 제14 · 15 · 17대 중앙종회의원과 백련사, 연화사 주지를 역임하며 종단 입법 · 행정 · 포교 전반에서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성남 봉국사 주지로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 종관위원장 오심 스님 선출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으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는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24차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오심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으로는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이 선출됐다.

신임 종관위원장 오심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 월봉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불교신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신성민 기자

불학연구소장에 덕림 스님 임명

혜일 스님, 임명장 수여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에 덕림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불학연구소장 덕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출가자 수 감소 등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치는 승가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다. 불학연구소에서 승가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덕림 스님은 "출가자 감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불학연구소장 덕림 스님은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3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0년 마곡사에서 동안거 이래 10안거를 성만하고 중앙승가대와 동 대학원, 동국대와 동 대학원에서 불교학과 불교음악이론을 전공해서 학 · 석사를 취득했다.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범패에 내재된 수행원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중앙승가대 신임 총장에 월우 스님 선출

승가학원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월우 스님 "학인 수급 등 현안
종단, 동문 스님들과 해결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이 신임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제9대 총장에 월우 스님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진우)은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0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월우 스님을 중앙승가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이에 따라 월우 스님은 12월 21일부터 4년간 총장 임기를 수행한다.

이사회 이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승가학원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월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무처장, 대흥사 주지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맡아왔다. 그 경험과 지혜를 통해 중앙승가대가 활성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40여 년 전에는 학인 수급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우 어려워졌다. 종단, 교수, 교직원, 동문 선후배 스님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중흥의 기초가 승가교육에 있음을 되새기며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우 스님은 1978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0년 해인사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83년 해인사 승가대학, 1987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행정학 석사, 건국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제12 · 13 · 14 · 16대 중앙종회의원, 정광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흥사 회주,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나눔의집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진우 스님 "제주에 국민 명상센터 건립 필요"

8일 오영훈 지사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주도에 국민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제주도는 평화롭고 청정해 마음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된다. 그만큼 지형의 기운이 좋다"며 "제주에 국민들이 평온한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명상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8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예방을 받았다.

이어 스님은 "제주에 명상센터가 설치되면 국민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제주 명상센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명상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이 배석했다. 신성민 기자

단독출마 장명 스님 직지사 주지후보 '확정'

중선위, 후보 자격 '이상없음'
산중총회 개최 상관없이 확정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주지후보로 단독 출마한 장명 스님〈사진〉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89차 회의를 열고 제8교구 직지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출마한 장명 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장명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장명 스님은 12월 9일 오후 1시 열린 산중총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직지사 신임 주지후보로 확정됐다.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본사 주지후보로 1인이 등록한 경우 산중총회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장명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8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제14 · 15 · 16 · 17대 중앙종회의원과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금정총림 범어사 재적승 기초수행지원금 신청 안내

범어사 재적 비구 / 비구니 스님들께 매월 기초수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는 2023년 1월 15일부터 범어사 재적스님들께 매월 20만원의 '기초수행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범어사 소속 수사찰에 책정된 특별분담금을 기금으로 하여 스님들의 전법과 수행 원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많은 재적스님들의 신청 바랍니다.
본사 소임을 맡은 사부대중은 향후 기금확충에 노력하여 더 많은 혜택이 승가대중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수사찰 특별분담금 지정사찰(가나다순) 마하사(주지 정산) 법륜사(각진) 선암사(원타) 성주사(법안) 운수사(범일) 은하사(혜수) 장안사(무관)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기본 자격은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한 범어사 재적승으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나. 사찰(공찰, 사설, 포교소, 산내암자)의 주지(대표, 감원)이 아닌 스님
다. 사찰, 종단, 기관 및 시설의 소임자로 월보시 백만원 이하로 받는 스님

■지 급 시 기 : 2023년 1월부터(지급일 : 매월 15일)
■지 급 액 : 매월 20만원(신청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차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5일 ~ 2023년 1월 9일까지(1차 신청 이후 상시 신청가능)
■신 청 서 류 : 가. 기초수행지원금 신청서(범어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통장사본(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통장 면 / 신청자 명의)
■문 의 / 접 수 :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250 범어사 종무소
TEL 051-508-3122 / FAX 051-508-3229
Email : beomeosa@daum.net

2022년 12월 15일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근대 이끈 불교인 면면 조명하다

종단협, 12월 6일 근대 불교인물 조명 세미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5일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근대기 한국사회를 이끌었던 불교인들을 발굴 ·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나라 빼앗긴 일제암흑기 등불을 밝힌 불교인'을 주제로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인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종단협이 1년동안 진행한 '근대사회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홍보 사업'의 마무리로 해당 사업은 일제강점기 항일투쟁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을 이끈 불교계 지식인들을 조명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종단협은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7명의 연구위원단을 구성해 독립 · 문화 · 예술 · 여성 · 교육 및 청년 등 다섯 가지 주제로 11명의 인물을 선정했다. 이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드뉴스, 포스터, 영문 소개책자를 제작해 회원종단에 배포했으며 라디오와 TV를 활용해 홍보캠페인도 진행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단협에서 발굴했던 11명의 근대기 불교 인물들을 조명하는 소논문들이 발표됐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승무를 통해 근대 무용을 이끌었던 한성준을 조명했다. 진관 스님은 "한성준의 승무는 조선 유생들에게 탄압받았던 불교가 역사관을 회복하며 새롭게 근대기 조선인들을 위무하는 춤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엽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근대기 불교미술사학의 거두였던 고유섭 선생의 면면을 살폈다. 최 전문위원은 "우현 고유섭은 불교미술 연구에 매진하며 신생 학문의 서구적 방법론에만 매몰되지 않

문화 · 독립운동 · 교육 등서 활동
근대 불교 인물 11인 발굴 · 조명
"인물 연구 통해 불교 지평 넓히길"

고 조선 미술사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박노영 선생을 조명한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박노영은 격동의 시대에 출가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조선의 현실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자 노력한 선각자"라며 "박노영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단협과 조계종, 통도사, 옥천사 등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는 조선불교여자청년회장으로 불교 교육과 여성 계몽운동을 펼쳤던 우봉운을 조명했다. 한 교수는 "우봉운의 불교계 활동은 수행의 범위를 넘어 근대 여성의 능력 계발이라는 목표를 보여 근대 불교계 여성활동가로 내세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묵당 강유문의 면면을 살폈다. 강유문은 역사를 공부한 불교인으로 44세를 일기로 입적하기까지 사찰 등에서 다양한 계몽운동을 펼쳤다. 김 교수는 "강유문은 건강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한국불교 역사를 밝히려고 최선을 다한 불교인이었다"고 밝혔다.

황상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한국불교사 최초의 거사 모임 '한국불교거사림'의 토대를 마련한 해원 황의돈을 조명했다.

이밖에도 종단협은 도서관의 아버지라 불리며 조선불교사를 정립한 용제 박봉석, 신평정터 만세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신화수, 일제강점기 불교사회운동을 선도한 이종천, 신여성이자 화가로 비승비속의 삶을 살았던 나혜석을 근대 인물로 선정해 발표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은 "격변기에 사회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불교인의 활동을 뒤돌아봄으로써 불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직할교구 사자암, 동국대에 1000만 원 기부

건학위 '지역불자장학' 기금 전달
동작구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조계종 직할교구 사자암(주지 영원)이 동국대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2월 7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자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곽채기 교무부총장과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박광현 교무학생처장, 사자암 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사자암 주지 영원 스님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화엄사 인천포교당 영응사 주지 우문 스님과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자헌 스님이 대신 참석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을 연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오늘 행사로 27회를 맞이했다"며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장학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동국대학교에 대한 더욱 큰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채기 교무부총장도 "건학위원회 출범과 함께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장학금 사업을 통해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소중한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사자암 주지 영원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원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우문 스님은 "영원 스님이 주신 소중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장학 명칭에 알맞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민기(컴퓨터공학전공 3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사자암과 영원 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홍민기 학생은 "좋은 기회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찰 덕분에 장학금을 받게 됐다"며 "이 장학금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건학위원회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모든 사찰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복지 발전, 자비실천에 앞장 서겠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2월 7일
2022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
"불국정토 위해 주마가편 자세로"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자비나눔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복지 현장 곳곳을 누비는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자비나눔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4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2022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를 봉행했다. 국악 공연으로 흥겹게 시작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이들에게 '힐링' 시간을 선사하며 성대한 막을 올렸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비롯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 32명과 6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유공자들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금목탁이 주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은 순천포교당 대승사 주지 보리 스님, 김일준 종로노인종합복지과장, 정종길 여수전남병원장 등 11명과 직지사 백련암 영상반야회, 하나금융나눔재단,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 단체 3곳이 받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먼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불교사회복지를 이끌고 있는 불교계, 사회복지계 복지 실천가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초발심시변정각이라는 화엄경에 담긴 말씀처럼 이웃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밀었던 처음에 일으킨 마음으로 이 땅이 불국정토 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물러남 없이 다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경과보고 후 종사자들에게 "불교사회복지의 위상강화를 위해 힘써줘 고맙다"며 "사회복지와 자비나눔으로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정관계 축하도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시상 후에는 축하떡을 나누며 올 한 해 노고를 격려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불교사회복지 발전 의지를 다졌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상생활 보시바라밀 전하는 것이 포교"

해외특별교구, 12월 1~3일
홍대선원서 승려 연수교육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정우)와 국제전법단(단장 정범)이 12월 1~3일 서울 홍대선원(JustBe Temple)에서 '국제 전법의 현황과 포교 전략'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연수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해외 포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원 인증 승려 연수 교육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과 국제 전법에 관심 있는 스님 30여 명이 참여했다.

스님들은 해외 한국사찰의 현황과 종단의 국제포교 방향, 관련 부서를 살펴보고 국내 외국인주민 현황과 포교방안, 세계불교도우의회의 활동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국 디트로이트 젠센터를 창건, 포교하고 있는 활선 스님을 줌으로 연결해 현대의 포교방법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가졌다.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밥 먹고, 일하고 지내면서 선을 찾고 몸소 보시바라밀을 전하는 것이 포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공동체를 이뤄 수행과 포교를 시작한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스님은 2003년 도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명상공동체 운영 시작부터 2022년도 홍대선원을 만들기까지 여정을 소개했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와 줌으로도 진행됐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참여한 스님들은 자유로운 소통이 좋았다고 평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학교
제20대 총장 초빙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이끌어주실
총장님을 모십니다.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현직 총장으로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서식) 1부
* 지원서 이력내용 공간 부족시 이력서 추가 제출 가능함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 추천서(지정서식)
※ 서식은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2.12.13.(화)~12.14(수), 17시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4층
법인사무처

기타
· 등기우편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총장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참고
· 문 의 (TEL) 02-2260-3005~7 (FAX) 02-2260-8973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솜이불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12월 6일
의정부 낙후지역에 겨울물품
가수 수지 2000만 원 후원
배아현 등 홍보대사도 동참

의정부=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면 스님은 12월 6일, 의정부를 찾아 소외 이웃에 겨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물품은 가수 수지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을 걸어 이불을 옮겼다.

해마다 낙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생명나눔신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올해도 겨울물품 지원에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서 ‘제9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실시했다. 일면 스님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홍보대사인 개그맨 엄영수, 가수 권미희, 배아현 등 봉사자 20여 명은 이날 의정부 고산동 일대 저소득 350가구에 각각 겨울 솜이불 1채와 물티슈 한 박스, 각종 먹거리가 담긴 식품 1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겨울 물품들은 가수 겸 배우 수지가 후원한 2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수지는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나누기 행사를 후원해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 및 독거 장애인 가구 등에 후원된 금액은 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겨울용품 나눔 전,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륜)에서 전달식이 개최됐다.

일면 스님은 “오늘 정나누기 행사를 통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온정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늘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아무 대가 없이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분들로 인해 소외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게 됐다”면서 “의정부시도 더욱 잘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전달식 후 봉사자들은 각 가정으로 이불 배달을 시작했다. 이날 겨울이불이 전달된 곳은 의정부 고산동 빼뻘 마을이다. 미군 주둔지이자 역사를 간직한 마을로, 한때는 의정부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인 동네였지만 점차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가게들도 대부분도 사라지고 낙후됐다.

주택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스님을 포함한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며 솜이불을 옮겼다. 온돌이 되지 않은 작은 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권00(80세) 할머니는 평소 인기척이 거의 없던 집에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던 권 할머니는 “두툼한 솜이불을 보니 올 겨울은 마음이 놓인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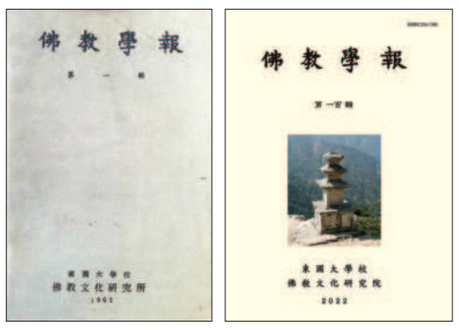
홍보대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솜이불을 전달하며 담소를 나누고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따뜻한 시간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배아현 홍보대사는 “직접 와보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시간과 여건이 되는 데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골목 곳곳 소외이웃에게 이불 배달을 마친 일면 스님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소외되고 힘들게 겨울을 보내야 한다”며 “약소하지만 우리가 드린 솜이불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장수 불교학술지 〈불교학보〉 100집 발행

1963년 10월 창간 후 누락없어
교학 · 사학 · 응용 분야 개척
동서양 사상 교류 큰 성과
새해 판형변화 등 혁신 예고



1963년 10월 창간된 〈불교학보〉가 100집 발행을 맞았다. 사진은 불교학보 1집(왼쪽)과 불교학보 100집(오른쪽).

1963년 10월 창간된 현존 최장수 불교학 전문학술지인 〈불교학보〉가 100집 발행을 맞았다. 6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년 단 한번의 누락없이 안정된 발행을 해온 결과라 더욱 뜻깊다.

종립 동국대 정체성 확립과 불교와 동서양 사상연구를 주도하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은 11월 30일 〈불교학보(佛敎學報)〉 100집을 발행했다.

제100집 발행 동안 〈불교학보〉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불교사상 · 문학 · 역사 · 철학 · 문화 · 예술 · 응용 등 불교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 논문을 꾸준히 게재해 왔다. 불교학계 최초 학술지를 넘어 불교학 전문연구의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다.

〈불교학보〉는 앞서 1958년 창간된 〈동국사상〉이 1998년 종간되며 현재 발생 불교학술지 중 가장 오래된 학술지 위상을 지니고 있다.

〈불교학보〉는 2005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후보로, 2009년에는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된 이래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 학술지로의 역할에 〈불교학보〉 편집체제를 참조한 후속 학술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 심사에서는 최초의 불교학 종합 전문학술지로서의 역사와 성격에 걸맞게 전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불교학 전 분야를 총괄하는 다양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면서도 논문의 질적 우수성과 여러 외국학자들의 논문을 유치하고자 했던 노력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은 “국내 최초의 불교 전문학술지이자, 한국 불교학 연구에 초석을 다진 불교학보의 오랜 전통이 제100집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불교학보 전통을 이어가 불교학술지의 선구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불교학보〉는 2023년부터 발행되는 제101집부터는 창간호부터 제100집까지 유지되어 온 기존의 판형이 변화한다.

〈불교학보〉 발행 논문 전편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홈페이지(https://abchome.dongguk.edu)에서 열람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불교 · 한의학 융합 연구로 발전 방향 모색

동대 불교문화연구원, 12월 4일
제1회 불교와 한의학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은 12월 4일 서울 동국대 법학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불교와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학술대회는 불교학의 외연을 확대, 인접 학문인 한의학과 연계를 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재진 동명대 교수는 ‘불교와 한의학의 연구 방향에 관한 제언-『불교의학상설』『황제내경』과 도불습합(道佛習合)을 중심으로’에서 불교 범주에서 한의학 요소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재진 교수는 “자연계의 변화가 인체의 생리 · 병리의 변화와 동일한 선에서 진행된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은 사람의 마음이 외부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불교 맥락과 유사하다”면서 “불교라는 범주에 한의학을 접목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경희대 HK연구교수와 윤은경 연구원은 손사막의 ‘대의정성(大醫精誠)’을 중심으로 불교와 한의학의 의료윤리를 발제하며 “손사막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살아있는 동물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하라고 했는데, 이는 불교에서 살아있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생명존중 사상인 불살생과 일치한다”면서 “손사막의 ‘대의정성’에서 보여준 생명존중에 대한 의료윤리는 불교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버금가는 서원이며 오늘날 생명윤리와 비교해봤을 때 전혀 시대에 뒤지지 않고 있다. 그 바탕은 바로 불교”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학철학으로서 아유르베다와 불교의학(이거룡/ 선문대 교수) △불교와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육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 간 상관관계 공통적 요소-‘심장’의 사례를 중심으로(강형철/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가 발표됐다.

임은호 기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12월 17일 한마음선원 본원

한마음선원 전법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문이 발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12월 17일 오후 1시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를,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한국불교학회장)가 ‘한마음선원의 전법토대와 전법실천 방안 고찰’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이자랑(동국대), 고승학(동국대), 서재영(성철사상연구원), 김봉래(BBS불교방송)가 참여한다.

발표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대행선연구원은 “연구원은 대행선사의 사상과 불교 사상을 집중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와 더불어 연간 네 차례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선학과 불교학 관련 전공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계절발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代' 이은 연등 제작
승강장치 시공 전문기업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010-9446-1862
031)768-7270, 7271
찬덕불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어받아
공장 직영 생산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보장합니다





서울 봉은사가 올해 담근 김치는 1만 포기에 달한다.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전달한 김치로 따뜻할 겨울을 날 어르신.



조계종복지재단은 김치 2만 4800포기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조계사 김장 나눔전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서울 조계사는 12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조계사 김장 나눔전'을 개최하고 8000kg 상당의 김치를 담궜다.

"올겨울 취약계층 김장 김치 우리가 책임진다"

전국 사찰 · 복지관 김치 나눔 현장

조계사, 8000kg 관내 소외이웃 전달
봉은사, 400여 대중 1만 포기 담궈
연말연시 김장김치 자비나눔 이어져

복지기관도 대규모 겨울나기 나눔
조계종복지재단, 2만 4800 포기 등
강추위에도 김장 나눔 온기 '훈훈'

신성민 · 노덕현 · 임은호 기자

전국 사찰과 불교계 복지관에서 경제 한파 속에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김장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사부대중의 자비나눔 온기로 훈훈하기만 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2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조계사 김장 나눔전'을 개최했다. 이날 김장 나눔전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앞치마와 고무장갑, 헤어캡 등으로 무장한 사부대중은 배추 8000kg, 약 4000포기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나눔전은 조계사 신도회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남군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기부해 이뤄졌다. 특히 이날 나눔전에는 조계사 어린이집 원아 40명도 김장체험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사부대중이 정성스럽게 만든 김장김치 가운데 3000포기는 종로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도 12월 3일 매서운 바람을 견디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2022년 봉은사 자비 김장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 산하기관 종사자 및 봉사자들만 400여 명.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봉은사 주차장 마당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는 이들이 저마다 모여 김치속을 채우고, 포장하며 바삐 움직였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만들어지는 김장김치의 양도 엄청났다. 전체 김치는 1만 포기에 달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직접 김장에 나섰다. 원명 스님은 "김장을 축제로 여는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1만 포기의 김치를 담그는 일이 힘들지만 이웃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나눔에 동참하는 단체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해 이번 김장축제에 10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윤석일 봉은사 거사림회 회장은 "도심 한복판 천년 사찰에서 이웃을 위한 김장축제를 하는 것에 무한한 영광"이라며 "앞으로 봉은사가 그늘진 곳에 많은 촛불을 밝히리라 본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한다"고 덕담도 전했다.

이날 김장에 사용된 배추는 평창 고랭지 배추로 봉은사 측은 좋은 김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고랭지 배추를 선택했다. 이날 담근 1만 김장김치는 삼성1 · 2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된다.

불교계 복지기관들도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겨울나기 나눔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교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겨울철 최대 먹거리인 김치를 비롯해 난방비 등을 지원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고 있어 훈훈함을 더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6일 서울 SK행복나래에서 SK그룹,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중앙회원들과 함께 '2022 SK행복나눔 김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김치는 SK스토아 방송에서 판매된 김치양만큼으로, 2만 4800포기에 달한다. SK스토아는 9월 22일 평창꽃순이김치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3억 130여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낸바 있다. 김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전국 복지관으로 전해져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나눔 마음으로 20여 년간 이어온 'SK행복나눔김장'은 우리 사회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라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데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21일부터 12월 9일 종로구 내 혹한기 취약계층 어르신 500가구에 김장김치와 난방비를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실시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지역사회 내 취약 어르신의 겨울철 건강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LX판토스, 한국마사회 종로지사, 아워홈, 하이트진로, 한국무역공사의 지원으로 각 가정에 정성 가득한 김장김치와 난방비를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추운날씨에도 자원봉사자가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안부확인을 통해 어려움 공감과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전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날씨가 많이 추워진 요즘, 김장김치 나눔을 실천해준 단체 및 기업과 자원봉사들의 정성으로 종로구 내 어르신께 온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여러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도 11월 30일, 이마트 은평점 · 수색점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3.5kg들이 김치 212박스를 지원했다. 이마트 은평점은 2016년부터 신사복지관 경로식당 어르신을 위해 급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수색점도 함께 후원에 동참, 훈훈함이 배가 됐다.

관장 지완 스님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뿐 아니라 후원까지 해준 이마트에 감사하다"면서 "덕분에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인사했다. 이마트 은평점은 "작지만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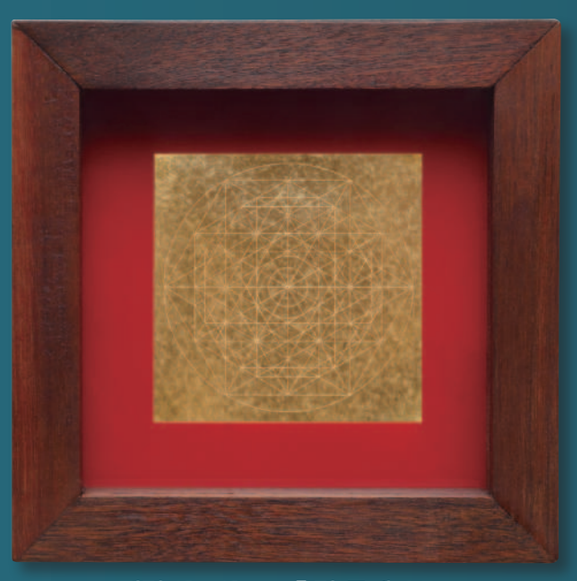
신중동종합복지관(관장 최영)은 11월 21일~12월 9일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부천시 신중동 지역 취약계층 588세대에 김치를 전달했다.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업무협조로 중복 대상을 최소화해, 최대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영 관장은 "매년 지역사회 나눔활동으로 전달되는 김장김치가 취약계층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성)은 12월 3일 '2022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재가장애인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60여 명의 자원봉사단체 회장단과 함께 600포기 김치를 담궜다. 김치는 10kg 상자에 담겨 경주지역 장애인 15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종성 스님은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먹거리인 김장김치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몸과 마음에 유익한 氣를 발생시키는 제품 퀀텀참

QUANTUM CHARM!



정면 12×12cm, 측면 두께 4.5cm
순금판을 이용한 실제 제품 사진입니다.
옆에 두어도 뇌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퀀텀참은 양자파동을 내는 부적이란 뜻입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여러 부적을 사용해왔는데 그중 가장 수승한 것이 천부인(天符印)입니다.

퀀텀참은 천부인의 재현에 해당됩니다. 퀀텀참은 뇌파, 맥파를 안정시키고 생체자기장(오라)을 상향시킵니다. 뇌파, 맥파는 최정미 박사님의 예비시험에서 확인되었고 오라는 이영좌 교수님의 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의 사용은 오라를 하향시키는데 퀀텀참을 간섭시킨 보조배터리(충전할 때 퀀텀참을 전선 위에 둠)를 사용하면 오히려 상향됩니다.

퀀텀참의 기가 전자에 얽혀 배터리에 저장됨으로써 휴대폰 사용 시 소리와 영상을 통해 기가 증폭되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 휴대폰의 소리와 영상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이 있지만 다른 파동을 간섭받으면 고유파동이 변하게 되며, 특별한 여건에서 수준 높은 상위의 파동을 간섭받으면 받은 파동이 얽히게 되어 얽힌 파동을 지속적으로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가 순금으로 된 미묘한 기하학적 구조일 때 더 수준 높은 파동이 증폭되어 나옵니다.

전설의 금척, 천부인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동경잡기, 삼국유사, 부도지 본문과 증심록 추기 등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도지에서 천부인을 천지본음지상(天地本音之象)으로 묘사하고, 부도지 증심록 추기에서 금척을 '허실지수 구이성십 차즉천부지수야 (虛實之數 九而成十 此則天符之數也)'로 나타내는 것은 대단한 비밀입니다. 순금으로 미묘한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고 이것에 천지의 수승한 기(氣), 수준 높은 상위 세계의 기(氣)를 전이시키는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시춘추에서는 천부를 성,명,정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목은문집에서는 비서[(祕書)풍수비전]의 이치가 천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의역). 풍수비전은 전후,좌우,상하로 분열되는 기가 중앙으로 응축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천부에 부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 명, 정(性命精)의 원리는 연정, 연기, 연신(練精, 練氣, 練神)인데 간단히 말해서 기를 닦아 그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기에서 발생되는 마음으로 진리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기 수준에 비례하므로 기 수준을 높여야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곧 천부사상입니다. 천부인은 이 철학을 내포하는 동시에 수승한 기를 내는 신물입니다. 천부인을 부도지에서 천지본음지상이라고 한 자체가 천지의 수승한 기가 천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금척도 천부인과 궤를 같이 하므로 금척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증심록 추기에서 김시습은 훗날 누군가 금척을 재현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부도지에서도 천부를 옥에 새겨 이용했다고 했으니 이것도 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퀀텀참은 이런 것에 부합하는 기를 내는 재현제품입니다. 퀀텀참은 소리, 영상, 빛 등에 공명하여 기를 좋게 하고 뇌파,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 소리, 영상화면, 빛의 수준을 좋게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산업적,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전도율, 영상, 음향, 표면장력, 혈액점도, 활성산소, 인슐린 등을 시험해 볼 계획입니다. 퀀텀참1 외에 2,3,4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퀀텀참의 금판은 999.9‰이고 중량은 약 4.29g입니다. 정가는 500만원이고 일정기간 350만원에 보급합니다. 주문 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리산 홍명 밀행자

정가 500만원 특판가 350만원 구매문의 시산 010-3775-9981

천불정사, 누림주간보호센터 문연다

12월 18일 준공 및 개원식 열어
회주 고담 스님 2018년 3월 발원

건축면적 176.14㎡ 총 4층 규모
전문서비스제공 도심포교 재도약
고령과 노인성 질병 어르신 지원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불정사가 12월 18일 누림주간보호센터 준공 및 개원식을 경내 일대에서 개최한다.

도심포교의 중심지로 활동해온 부산 천불정사(회주 고담)가 누림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완공했다. 천불정사는 12월 18일 경내 일대에서 누림주간보호센터 준공 및 개원식을 개최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가에 위치한 천불정사는 그동안 인재불사에 앞장서 왔으며,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도량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누림주간보호센터 건립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도량으로 또 한 번 발돋움한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부처님 자비정신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전법과 포교에 매진해온 천불정사 회주 고담 스님의 원력으로 건립됐다. 이름의 '누림'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리'라는 의미로, 고담 스님이 직접 지었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연면적 428.16㎡ 건축면적 176.14㎡ 규모로 총 4층 규모의 건물이다. 1층과 2층에는 누림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및 생활실이 있으며, 공양실과 어르신의 휴게공간이 있다. 휴게공간은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안마기와 침실이 있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안락함을 더했다. 3층은 오피스텔로 활용되며 4층은 누림주간보호센터 직원 휴게실 및 창고이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기능회복, 일상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다. 이용 희망자는 센터로 내방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천불정사 회주 고담 스님의 숙원사업이다. 고담 스님은 1999년 도심포교를 위해 부산의 중심 대학가에 도량을 세웠다. 지역 포교를 위해 지역 특성을 먼저 고려했고 인재불사를 위한 지원을 진행했다. 고담 스님은 매년 1000만 원씩 16년간 총 1억 6000만 원이 장학금을 부산대에 후원했다. 또 2006년부터 부산대 고시생을 위한 기숙사 '고담정'을 운영했으며, 부산대 고시지원반 '신목정' 학생들에게 숙식 및 학업 지원금을 후원해왔다. 매년 부산대 행정고시 합격생들은 천불정사를 방문해 고담 스님께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쌀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동지 팥죽 나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고담 스님은 지난 부산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금정구민 유공구민으로 표창, 향토봉사상, 교정대상 등을 수상했다.

고담 스님이 지향한 포교의 큰 그림은 여러 갈등 속에서 힘겨워하는 대중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에게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도량을 세우는 것이다.

고담 스님은 2018년 3월부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 출발은 고담 스님이 사비를 출현해 건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었다. 이후 2021년 6월 23일 노유자복지시설 건축 증축 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이번 해 3월 22일 착공식 및 안전기원재를 봉행했다. 8월 30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0월 25일 노유자복지시설 4층 증축 허가 승인을 받았다. 11월 21일 누림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마무리했다. 입소정원은 24명이다.

창원 성주사불교대학 7기 졸업식·수계식

김기환 외 졸업생 총 58명 배출
김현옥, 김하정 등 9명 표창·수상



창원 성주사불교대학이 제7기 졸업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2월 4일 설법전에서 봉행된 이날 졸업식 및 수계법회는 개식,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傳戒師), 참회, 연비, 귀의, 선계상, 졸업장 및 부동품계증 수여, 표창장 수여, 개근상 수여, 주지스님 법문, 내빈소개 및 축사, 축가, 발원문, 회향, 단체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법안 스님은 "학사모를 쓴 환한 모습을 보니 참된 불제자로서 공부한 내용을 실천하고 주변 도반들에게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며 "항상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 자비심을 베풀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순 신도회장은 "매번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지만 배움이 처음과 끝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진실 되고 최선을 다하며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덕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년고찰 성주사에서 졸업을 축하드리며, 포교사시험도 보고 참된 불자도 되어 성주사와 사회를 위해 불교대학에서 배운 수행과 정진을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환 거사 등 58명의 졸업생과 수계제자에게는 졸업장, 수계증. 부동품계증이 전달됐다. 또 김현옥, 김하정 불자에 대한 성적우수자 표창이 이어졌으며, 김은경 불자 등 9명은 개근상을 수상했다.

한편, 성주사 불모학당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입문과정으로 연4회 10주 과정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불모학당 수료자 및 기초교리 이수자를 위한 심화과정으로 불교대학 졸업자에게는 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매년 3월 개강하여 10개월 과정이다.

성주사 곰숲 템플스테이 나를 찾는 행복여행으로 체험형(매주 주말), 휴식형(상시운영), 당일형(매주 수요일), 단체형(상담 후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의는 종무소(055-262-0108)로 하면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옥천사 개산 1347주년 연화옥천 예술제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개산 1347주년을 맞아 12월 3일 옥천사 자방루에서 연화옥천 개산예술제를 봉행하고 '내 마음속 7가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고성 옥천사가 개산 1347주년을 맞아 12월 3일 연화옥천 개산예술제를 봉행했다.

마가 스님은 "최근 보물로 지정된 자방루의 보존방법을 고민하다가 외부의 보물만이 아닌 내 마음속의 보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옥천사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템플스테이와 함께 내 마음의 부처를 찾기 위한 상설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내 마음의 7가지 보물을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옥천사를 방문하는 대중은 법성게를 자연친화적인 대나무를 활용해 설치한 법성도를 돌아 자방루에 오르고 난 후 사경을 하며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마음약방을 체험하게 된다.

치유의 물이라 불리는 옥샘체험은 산신각에서의 사업성취기도, 팔상전에서 부처님처럼 살기를 서원하고, 사람으로 인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칠성전에서 좋은 인연 만나기를 기도한다.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은 삼천불전에서 몸치유기도를 하고 몸과 마음이 피로한 사람은 약사전에서 옥샘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 나한전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명부전에서는 유서쓰기, '어서와 염라세계 지옥은 처음이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 성보박물관에서 '옛것을 통해 나를 보다' 연화산 숲속명상. 독립운동스님들과 함께하는 호국체험을 할 수 있다.

마가 스님은 "올해 예술제를 기점으로 명상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위해 부산과 창원, 진주, 옥천사 등에서 명상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심산 스님, 만초 스님, 혜안 스님, 월호 스님, 금강 스님, 월호 스님 등 스님과 불교계인사 초빙 강연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 같은 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뉴욕과 하버드대학, 샌프란시스코, 영국, 미얀마를 온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명상대학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간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옥천사에서 가족, 친구, 도반과 한 달 동안 숙식하며 지내는 옥천사 한 달 살기, 청소년 명상캠프, 숲속 걷기 명상, 보현행원품 강설(자방루 경전마당)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삼광사, 시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문화제

김장김치 10kg 1000박스 전달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11월 30일 삼광사 대중공양실에서 제5회 시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문화제를 개최했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삼광사 교무 덕중 스님, 재무 무성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자운 스님,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및 복지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삼광사는 개회식에 이어 배추 3000여 포기를 준비해 김장을 시작했으며 10kg 1000박스를 제작했다. 이날 만든 김장김치는 부산진구청(230박스), 다문화가정(450박스), 저소득가정(320박스)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주지 영제 스님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절실할 때"라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경남, 2022년 포교 전진대회

12월 3일, 진주 롯데시네마 MBC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이 12월 3일 진주 롯데시네마 MBC홀에서 경남지역단 포교사단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전진대회에는 옥천사 마가 스님, 지도법사 쌍계사 덕룡 스님,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장건환 포교사단 부단장, 안정임 서부지역총괄팀장을 비롯한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입재식에서 인사말을 비롯해 상장수여, 축사, 격려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영화 '불효자는 웁니다' 시청과 총괄팀별 단합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진우 스님의 당부처럼 이 시대 포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초발심을 간직하고 수행 정진하는 포교사가 되고 더 많은 포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음 해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원오사, 녹색사찰 되다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식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가 12월 1일 경내 대웅전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판 전달 및 인사말을 통해 환경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발원했다. 아울러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녹색사찰의 활동 및 향후 방법'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녹색사찰의 활동 방안을 소개했다.

원오사는 △일회용 사용줄이기 △빈그릇 운동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사찰숲 프로그램 제공 △지역의 환경문제에 공동대응 등을 실천함으로써 환경운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주지 정관 스님은 "환경보호는 미래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맑고 건강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녹색사찰로서 불자와 지역민들이 환경보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생명·환경' 세미나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가 11월 30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생명존중 및 환경지키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생명존중 및 자연보호를 위한 종교별 사례를 발표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발표는 문태근 부산 마하사 거사회 회장의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정진숙 천도교 한울연대 공동대표의 '한울을 모시고 사람을 섬기며 만물을 받드는', 김두호 기장향교 사무국장의 '공자의 사상을 통해 본 생명존중', 배현공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여성회장의 '원불교 여성회 환경운동 실천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강덕제 원불교 부산울산교구 서면지구장 김창윤 기장향교 전교, 박차귀 천도교 부산교구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가 동참했다.

대표회장 정산 스님은 "서로를 위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종교를 초월한 화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생명존중과 환경보호는 모든 인류의 바람이며 종교인의 실천과제"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불선원, 제13회 선불교대학 졸업식

23명 졸업 · 김태순, 이동호 표창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학장 무아)이 12월 3일 진불선원 5층 대적광전에서 제13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학장 무아 스님, 박성철 교수, 박종배 동문회장, 졸업생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으며, 졸업증 수여 및 신도품계증 수여, 시상, 회향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13기 졸업생은 총 23명이며 포교원장 표창은 김태순, 이동호 불자가 받았다.

학장 무아 스님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모두 중도에 낙오자 없이 졸업하게 되어 기쁘다"며 "진정한 졸업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로 깨어날 때이다. 수행 정진으로 행복을 증득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박종재 동문회장은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하시는 무아 학장 스님께 감사하다"며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함안불교사암련 바웃다합창단 이웃돕기

정기연주회 수익금 210만 원 기탁



함안 불교사암연합회 바웃다 합창단(단장 박문자)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성금 210만 원을 함안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바웃다 합창단이 11월 23일 개최한 제4회 정기연주회 '불음과 나눔으로 소통하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함안불교사암연회장 원명스님, 박문자 바웃다합창단장과 단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개선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문자 합창단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자타불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나눔으로 소통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근제 군수는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모금한 소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웃다합창단은 5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도 공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한 바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월하 대종사 ‘자비희사·생명존중’ 널리 펴자”

월하 대종사 19주기 추모 다례 봉행
영축문화대상 시상 장학증서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월하 대종사가 생전에 실천해 온 자비희생 정신과 생명존중 사상을 기리는 추모 다례재와 영축문화대상 및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은 12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 대종사 열반19주기 추모다례재’ 및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이날 다례재와 대상 시상식에는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가 참석해 월하 대종사의 사상을 기리고 유지를 잇는 영축문화재단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영축문화재단 이사장)과 대중스님,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다례재, 2부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3부 영축장학금 전달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식과 함께 대중스님들은 대중과 함께 삼배의 예를 올렸으며, 문도스님들을 중심으로 월하 대종사 영전에 헌다와 헌화가 이어졌다. 또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의 인사말과 영축문화대상이 학술문화상, 봉사실천상, 포교원력상으로 나뉘어 수여됐다.

행사에서는 통도사 자비원에 공양미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은 12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월하 대종사 열반19주기 추모다례재’ 및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했다.

50가마가 전달됐으며, 해동고 백효민 학생을 대표로 총 10명의 학생에게 각각 50만 원 씩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 전달식 이후에는 주지 현문 스님의 인사말과 월하 대종사 부도전 참배로 마무리됐다.

월하 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에서는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의 헌다에 이어 前 영축총림 방장 원명 지종 대종사의 헌다가 이어졌다. 이어 사부대중의 삼배와 함께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성파 대종사는 “코로나와 추운 날씨에도 많은 대중이 참석해 감사하다”며 “월하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고 종단의 사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추모다례재 후 영축문화대상 시상식과 장학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주지 현문 스님은 “제자들이 열반 10주기부터 유지를 잇기 위해 장학재단 설립 등을 논의, 종정 예하 말씀에 따라 문화대상을 만들어 오늘 10회 시상을 하게 됐다”며 “60여 명에 달하는 불교문화계 인사들이 신청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에게 상을 시상하게 됐다. 영축문화대상은 월하 대종사의 유지도 있지만 통도사가 대사회적인 행보를 넓히고, 사회와 더불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불자들도 이러한 의미를 알고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문화상에는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역대선사의 깨침과 수행관에 대한 학문 연구, 고찰’의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20년간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와 정신적, 물질적 지원도모 공로로 봉사실천상을 수상했다.

또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스님 등을 초청, 자국민 불교활동, 통역지원, 병원동행 지원 등의 공로로 경남파라미타협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이 포교원력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영축문화대상 및 장학금을 수여한 영축문화재단은 2003년 입적한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사상을 잇고 오늘날 국지대찰과 세계문화유산 통도사가 있게 한 대종사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문도들과 신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영축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가 취임한 바 있다.

2014년에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탄신 100주년 추모행사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유물 전시회 ‘영축산에 달뜨거든’ 행장기 봉정식도 진행됐다.

2016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1억 원을 기부했으며, 2017년에는 푸에르토리코 지진 피해 돕기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매년 두 차례씩 부산 해동고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월하 대종사의 자비희사와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밀양 삼봉사 생전예수재 봉행



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밀양 삼봉사(주지 녹원)가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12월 3일 삼봉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는 어산어장 현암 스님과 어산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불교방식으로 봉행됐다.

생전예수재에 동참한 100여 명의 신도 및 사부대중은 의식이 진행되는 3시간여 동안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생전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했다.

생전예수재는 영산재, 수륙재와 달리 본인 및 가족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지내는 재라는 특징이 있다. 시왕신앙 중심의 사후 심판에 대한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기복이 아닌 자기 성찰의 의미로 생전예수재를 통해 사회적으로 권선징악적 가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오늘날 생전예수재의 설행에서 이 같은 다른 의식과 달리 성찰과 참회, 권선징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녹원 스님은 “예수재는 미리 예, 닦을 수, 예수재라고 하였듯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살아생전에 생과 죽음이 없는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 정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며, 살아생전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악업들을 오늘 예수재를 통하여 소멸시키고 마음이 뻥 뚫려서 자신과 가족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 행복하고 편안해지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상봉사에서 처음으로 봉행하게 된 예수재를 오늘에 하게 된 것은 동지를 앞두고 동지가 한해의 기운이 교차되는 시점이라 동지 전에 불자들과 예수재를 함으로써 계유년 새해 액운이 물러나고 좋은 기운이 가정과 불자들에게 다가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장 묘법선원에서 참석한 최경남 보살은 “예수재 후 만족함에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 지고 가족들의 편안함과 자신의 건강이 한층 좋아진 느낌”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사회가 밝아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봉사는 12월 16일 이태원참사 희생자 천도재(49재) 회향을 앞두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주사암聯 8대 신임회장에 도일 스님 취임

7대 前 회장 상진 스님 이임…신임회장 취임식 · 효 경로잔치도

양주불교사암연합회가 12월 5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7·8대 회장 이·취임식 및 효 경로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7대 회장 상진 스님(청련사 주지)에 이어 8대 새 회장에 도일 스님(오봉산 석굴암 주지)이 취임했다.



前 회장인 상진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양주 사암연합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스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탁월한 사명감과 돈독한 불심을 갖고 계신 도일 스님은 사회복지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진력하시는 분”이라며“이런 훌륭한 리더십으로 앞으로 우리 양주사암연합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치하했다. 이에 신임 회장 도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소납이 중책을 맞아 걱정이 앞서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큰 서원을 갖고 공심으로 양주사암연합회를 이끌도록 진력하겠다”며 “역대 회장 스님들께서 성장 발전시켜 놓으신 초석 위해 성심을 다해 뜻을 이어 받들어 최선을 다하며, 특히 회원 사암 주지 스님들의 친목과 화합을 우선 시하며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취임사가 끝난 뒤에는 전임 집행부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및 신임 집행부 임명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초청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장 초격 스님(봉선사 주지)은 봉선사 문화원장 성일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신임 회장 도일 스님의 수행과 행정력으로 양주불교사암연합회의 큰 발전을 기대하겠다”고 축하했다. 강수현 양주시장과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껏 돕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새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역 노인복지 기여자와 효자·효녀상 시상식,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상진 스님의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식에 이어 2부 행사 효 경로잔치 한마당이 펼쳐져 초청된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주=김주일 기자

태고종 총무원 ‘2022 자비나눔’ 행사 펼쳐

12월 2일 양주 시청 방문해 후원물품 전달
종로·고양·인천 등에 김장김치 4천만원 상당
양주 청련사도 성금 5백만 원 양주시에 보시

연말연시를 맞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원장 호명)이 ‘2022 태고종,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나눔 행사를 지역순회 형식으로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태고종은 우선 12월 2일 경기도 양주시청을 방문해 강수현 시장에게 김장김치 10kg 100박스와 컵라면 6개들이 150박스, 두루마리 화장지 150박스, 고무장갑 500 켤레 등 1천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수현 시장은 “항상 양주시 관내에 있는 태고종 청련사에서 연말연시 후원물품을 보내주셔서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코로나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나눔 정신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태고종단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태고종은 이어 서울 종로구청과 경기 고양시청, 인천 중구청 등도 잇달아 방문,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12월 중순경 서울 종로지역 일대서 시민 대상으로 ‘팥죽나눔’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도 이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이 양주시청에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성오 스님, 청련사 주지 상진 스님(동방대학장), 총무원 총무부장 도성 스님, 사회부장 현담 스님,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 진암 스님, 각명사 주지 법혜 스님, 보현사 주지 석정 스님 등이 참석했다.

양주=김주일 기자

제32회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시상식

창원특례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 불지사 주지)가 12월 5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제32회 향기로운 산해원(山海原)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문학상을 수상한 이달균 경상남도문인협회 회장은 1987년 등단 후 현재까지 9권의 시집과 평론집 출간, 국내 유수의 권위 있는 문학상 수상으로 경남문단 발전을 선도해왔으며 경남문인협회장을 맡아 지역 문학 역량 강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크게 노력해왔다.

예술상을 수상한 박금숙 경남서예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예가이자 한학자로서 경남지역 예술계의 모범적인 창작활동과 지역문화 인물 발굴 선양 사업을 이끌었으며 창원예총 회장, 경남서예단체총합회 회장 등을 맡아 예술계의 화합 상생을 위해 크게 노력해왔다.

언론상을 수상한 장원일 MBC경남 사업센터장은 1995년 마산MBC 기자로 입사해 현재까지 27년 동안 언론인의 길 걸어오면서 일선 기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지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장취재 보도를 통해 향토언론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왔다.

한마음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박수철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은



1991년 산해원문화상 제정과 함께 32년 동안 재정확보와 운영 전반을 주도했으며,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와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등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해왔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7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창원불교사암연합회장 정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제32회 향기로운 산해원(山海原) 문화상 수상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삶에 있어서 지혜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창작물의 진원지이며 예술은 그 다양한 창작물들을 성숙시킨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이며 언론들은 창작과 창조에 한층 더 의미를 부여하여 모두에게 전해주는 수레바퀴이며, 공로는 오직 한마음으로 창작과 창조의 수레바퀴를 이타(利他)정신으로 보존하며 키워 나아가는 데 혼신을 쏟아 붓는 분이라 할 것이다”고 치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문화해설사 3기 수료식

사찰문화 해설사 교육과정
15회 강의 30시간 교과과정
3개월 교육과정 21명 수료
사찰현장서 해설사로 활동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가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법회를 봉행했다.

12월 3일 수현사 큰법당에서 열린 이날 수료식에는 3개월과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21명의 불자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현사 주지 응묵스님, 용묵 스님.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 장석희 대불청 전북지구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과 청년회원, 1·2기 사찰문화해설사들이 참석해 수료를 축하했다.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은 “사찰문화의 중심이 되는 전각, 불상, 탱화, 단청, 탑 등은 오랜 세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라며 “자격 취득을 축하하며 지인들에게도 두루 알려 사찰문화해설사문화가 발전하고 지역불교와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화 대불청중앙회장은 “스님들의 자비정신이 깃든 주어사, 천진암, 해미읍성이 천주교 성지로 둔갑하고 광화문 역사물기 연표석 오류, 십자가 보도블록 설치 등으로 불교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찰문화해설사 제도를 대불청의 주력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기 수료식에서는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안예진 학예사, 전북불교대학 부학장 이지복 교수, 원광대 김정희 교수의 지도로 15회의 강의를 통해 총 30시간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논술형과 서술형 시험을 통과한 21명의 회원이 사찰문화해설사 자격을 취득했다.

사찰문화해설사는 문화재 지킴이활동, 사찰문화와 역사해설, 동영상제작 유튜버, 사찰현장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어린이 법회 ‘숲 법회’ 1년 회향

광주지역의 특별한 어린이 법회인 ‘숲 법회’의 1년 회향식이 열렸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회장 동천)가 진행하는 숲 법회는 매월 첫 주 일요일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법회이다. 어린이법회가 거의 없는 광주의 포교여건에서는 귀중한 포교활동으로 평가된다. 이날 법회는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법회에 대한 회향과 참여한 어린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지장 스님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등



이 참여해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법회를 축하했다.

도계 스님은 “1년 동안 건강하게 숲 법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개암사, 이웃돕기 백미 140포 기탁

부안 개암사(주지 종고)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부안군에 기탁했다.

개암사 총무 지형 스님과 신도들은 11월 28일 부안군을 방문해 연말을 맞아 부안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 전해달라며 백미 10kg 140포(300만원 상당)를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개암사와 개암사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으로 개



암사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100박스를 기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라이라마, 3년 만에 보드가야 방문

12월 25일, 마하보디 사원에서
세계평화 기원 기도법회 봉행
한 달 체류…보리심석로 법문
노선 부활로 경제 활성화 기대

박영빈 객원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악영향으로 전 세계가 불안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해외 불교신자들이 달라이라마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위해 12월 25일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 도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인도의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는 오는 25일 부다가야를 방문하는 동안 달라이라마에 대한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이번 달라이라마의 방문은 많은 티베트인들과 해외 불교신자들, 부다가야 지역 정부의 요청 등이 중첩되어 성사됐다. 달라이라마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보드가야에 도착할 예정이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마하보디 사원의 대탑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봉행할 예정이다.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달라이라마는 12월 29일부터 3일간 대중들에게 용수보살의 〈보리심석론〉을 법문하고 허가관정을 수여한다. 1월 1일에는 티베트인들의 요청으로 달라이라마의 장수를 기원하는 법회가 봉행된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약 한 달가량 부다가야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보드가야를 방문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마하보디 사원의 총책임을 맞고 있는 스리랑카의 찰린다 스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달라이라마는 이 성지를 방문한 수만 명의 불교도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도록 이끌 것"이라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평화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보드가야에 산재한 52곳의 국제 불교사찰들에 상주하고 방문하는 승려 수천 명과 수많은 재가순례자들이 달라이라마의 대중법문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드가야에 다시금 활기가 가득할 것을 기대했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부다가야 방문은 단지 세계평화 기원뿐만 아니라 불교성지가 밀집한 부다가야 인근과 인도 비하르주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한다는 전망이다. 부다가야의 지역상인들은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폐쇄됐던 가게와 시장들을 보수하고 있다.

부다가야 중심부 식당을 운영하는 데브 쿠마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순례자들이 끊기면서 우리는 모든 사업을 잃었다"면서 "다시금 관광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순례자들이 되돌아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달라이라마 방문으로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전이었던 2019년의 경우 전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부다가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현재 인도정부는 세계은행의 자금으로 부다가야와 인근 성지를 하나로 묶는 순례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낙후됐던 불교성지들의 개보수는 물론 지역사회에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부다가야의 입구를 맡았던 부다가야 국제공항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 국제노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전세기인 국제선 5~6편이 순례자들을 싣고 매일 보드가야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의 체류가 확정되면서 정기노선이 부활할 수 있다"고 기대를 비쳤다.

日, 단풍명소 사찰서 단풍 벌채한 범인 체포

인근 유명 일식집 직원 소행
사찰측 유감 표명…법적 조치


꺾여진 채 발견된 단풍 나무 가지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 교토에 최초로 세워진 선종사찰이자 단풍명소로 유명한 켄닌지(建仁寺)에서 단풍이 무단 벌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인인 2인조 남성은 유명 일식집 직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일본의 'NHK 뉴스' 는 켄닌지의 피해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13세기에 교토에 최초로 세워진 선종사찰인 켄닌지는 일본 선종과 다도 문화의 보고로 알려진 사찰이다. 넓은 부지에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가 장관을 이뤄 매년 가을 수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사찰에서 무단으로 단풍이 벌채하던 2인조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켄닌지 측은 지난 11 월 18일 오후 10시 반경 하얀색 쓰레기 봉투를 가진 남성 2 인조가 계속해서 절을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사찰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봉투를 빼앗았다"고 전했다. 압수한 봉투 안에서는 단풍나무 가지가 수백 개 꺾인 채 들어 있었다. 사찰 측은 방범 카메라를 확인, 남성들이 경내의 단풍나무의 가까이에 설치된 울타리를 발판삼아 단풍가지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모습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범인인 남성들은 교토시내 음식점 직원이라고 자백하며 요리장식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사찰 측은 "이전에도 같은 가게 종업원을 자칭하는 다른 남성이 경내에서도 단풍을 꺾으려던 것을 스님들이 주의를 주고 돌려보낸 적 있다. 해당 가게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에서 2성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급 일본 요리점"이라고 전했다.

해당 가게 측은 남성들이 가게의 직원임을 시인하면서도, 가게의 방침이 아닌 직원들의 단독 소행이라고 말했다. 겐닌지 내무부장 아사노 슌도 스님은 "절의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모두 참배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소중한 생명이다. 이러한 나무를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단으로 잘라 버리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베트남 승가, 불교도에게 국가 협력 촉구

유일 국가 승인 불교단체 VBS
11월 28~29일 불교대회 개최
국가통합 · 환경보호 대응 강조


지난 11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VBS 전국불교대회. 사진출처=UCA 뉴스

사회주의 정부인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국가승인을 받은 불교단체인 베트남 불교 승가(VBS)는 최근 열린 전국 불교대회에서 베트남과 불교 모두를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2월 1일 'UCA 뉴스' 등의 외신은 베트남 불교계와 정부의 협력체계에 대해 보도했다. VBS는 1981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베트남 정부가 유일하게 공인한 불교협회다. VBS는 국제적으로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VBS는 지난 11월 28~29일 수도 하노이에서 제9차 전국 불교대회를 개최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는 베트남 전국 63개 도시와 지방 및 해외 베트남 공동체에서 1000명 이상의 사부대중과 각계 협력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과 정부기관의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베트남의 모든 종교활동을 통제하는 종교사무위원회의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 VBS 집행위원회 의장인 틱 티엔 논 스님은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고 규율, 책임, 연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민의 마음속에 VBS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대회에 참석한 팜민찐 총리 역시 "불교는 베트남의 국가건설과 국방의 대의에 큰 공헌을 해왔다. 지금과 같이 공산당 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이행하면서 베트남의 훌륭한 전통을 지키는데 불교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베트남 국내에서 불교가 1만 8500개 이상의 시설, 약 5만 5000명의 승려와 비구니와 14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베트남 주요종교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VBS는 전체 인구의 거의 60%에 해당하는 약 6000만 명이 불교신자라고 발표했다.

대회 말미에 VBS는 공식성명에서 "모든 출재가의 사부대중들은 국가와 국민, 또 우리의 종교인 불교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애국 프로그램과 불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틱 티엔 논 스님은 성명을 낭독하며 "베트남 불교도들은 국가의 통합을 촉진하고 베트남의 환경보호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베트남 고유의 특성과 전통가치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5년간 VBS를 이끌 네 번째 지도자로 올해 세납 82세의 틱 찌꽝 스님을 선출했다. 틱찌꽝 스님은 베트남 불교연구소장으로 베트남에서 존경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국내외 불교단체의 스님들의 법계 품수가 논의 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268명의 비구 대종사와 391명의 비구니 대종사, 1102명과 1581명의 비구 비구니 종사가 법계를 품수하게 됐다.

또한 대회를 통해 VBS는 단체 헌장을 정부의 법률과 종교규정 및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수정된 헌장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종교사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사찰 절도 잇따라 발생

불자 행세 접근…스님 폭행
절도 빈번하자 FBI 협력도


스님이 강도를 제지하자 집단 폭행을 가하는 강도들. 사진출처=왓 라오 사원 cctv캡쳐

지난 12월 3일 미국 '폭스 뉴스' 는 텍사스 주와 테네시 주에서 발생한 사찰 절도 및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11월 20일 텍사스 주의 화이트 세틀먼트에 위치한 왓 부사야드 함바나람 사원에서 불자행세를 한 강도단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훔친 밴을 타고 사원에 침입한 9명의 용의자들은 스님에게 투병 중인 형제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스님이 기도를 시작하자 일부 용의자들은 사찰을 뒤져 3만 8천 달러(한화 약 5천만 원)를 훔쳐 달아났다.

크리스 쿡 경찰서장은 "용의자들은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한 팀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한 팀은 현금을 훔쳤다"고 설명하고 "텍사스에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FBI와 협력 수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른 주에서도 사찰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테네시 주 중부 내슈빌 올드 히코리 대로에 있는 왓 라오 사원에서도 불자행세를 한 강도단에 의해 절도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용의자 5명을 찾고 있다.

11월 23일 오전 9시경 스님이 문을 열자 강도 5명이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에 따르면 2명의 여성이 스님을 바닥에 눕혀 제압 및 폭행을 가하고 다른 2명의 여성은 절을 뒤지며 현금을 챙겼다. 스님이 한 여성의 가방을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강도단은 스님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남성 용의자는 자물쇠로 스님의 머리를 강타했으며 여성 용의자들은 스님을 폭행하고 옷을 찢었다. 여성은 스님의 손에서 벗어나자 황급히 차를 타고 도주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리 민화의 새로운 모색 '옻칠민화'

제7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
통도사성보박물관 12월 18일까지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옻칠 기법 계승한
옻밭아카데미 회원 18명 30여 점 선보여
전통 민화에 옻칠기법 더해 새 장르 열어
옻물감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색감 개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강필순 作, 몽중연.


박혜희 作, 고집멸도.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제7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도사 서운암 옻밭아카데미 회원 18명이 옻칠물감으로 그린 민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옻밭아카데미의 옻칠민화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옻칠기법을 계승하여 그린 그림이다.

민화는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생활공간의 장식 등을 위해,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를 말한다. 조선 후기에 서민층에서 유행했다. 대부분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습 등의 항상성에 바탕을 두고 발전했기 때문에 창의성보다는 형식화된 유형에 따라 인습적으로 계승됐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민화는 민중이 그린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화가 자유분방하고 격외적인 그림으로 대변되는 것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덜 받고 민중이 그렸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이런 민화의 특성을 살리는 데 옻칠 기법을 더함으로써 달라진 시대에 부합하는 미술 장르를 열어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소재 면에서도 책가도 등 전통의 민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있는가하면 연꽃을 소재로 한 현대적인 느낌의 그림도 있다. 선조들의 민화가 그 시대를 그렸듯 옻빛아카데미 역시 이 시대에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색감에 있어서도 옻물감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움과 시대상이 반영된 색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단청의 느낌을 품고 있지만 새로운 도형과 어우러진 또 따른 색감의 단청이 그렇다. 조선시대에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이 시대의 색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색과 성과가 이번 전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옻밭아카데미는 방수 · 방부 · 방충 등 옻칠 특유의 미학적 특성을 공부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성파 스님과 함께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옻칠민화를 그리는 작업이 전통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최상의 수행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옻칠민화 작업에 정진하고 있다. 또한 옻으로 민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옻칠 목판 작업, 옻칠 채색화 작업, 나전칠예 작업 등이 수반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수행이고 결실을 맺는 매회 전시가 삶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작업했다고 한다.

성파 스님은 "한국 미술은 고대에 불교미술과 결합하여 고려시대까지 찬란한 꽃을 피워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화를 그리던 화원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그린 그림이 오늘날의 민화"라고 설명했다.

통도사에는 명부전, 해장보각, 용화전, 응진전 등의 전각에 많은 민화가 그려져 있는데, 소박하고 파격적인 형식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민중의 염원이 갖가지 상상과 은유로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성파 스님은 이번 '제7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 을 맞아 '화심수성花心水性' 이란 휘호를 내렸다고 한다.

이현주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은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많은 장르를 망라하여, 화조, 인물, 산수, 기명절지, 불화, 단청, 십장생, 문자도, 책가도, 운룡도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어 옻칠과 민화의 영역이 경계 없이 무한함을 알려주고 있다"면서 "해를 갈무리하는 즈음에 옻밭아카데미 회원의 노고가 우리 문화의 창달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파 스님은 10여 년 전에 칠화를 시작했다. 우리 전통 산수화와 옻칠 그림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중국 대가들의 작업실을 오가며 오늘날의 옻칠민화를 완성했다. 성파 스님은 서운암에서 한국적 미술재료인 옻액을 활용해 칠화 작업을 하고 있다. 옻에 상처를 내면 흘러나오는 '옻액' 에 석채, 흑연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직접 옻물감을 만들어낸다. 성파 스님에 의하면 칠화는 내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화는 여러 번의 덧칠을 하고 마지막에 칠하는 색을 보여주지만 옻칠화는 덧칠한 부분을 깎아내 속을 보여준다. 표면을 버리고 이면을 드러내는 기법은 옻물감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런 옻물감은 화려하면서도 중후한 맛과 멋을 내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색감이 생생히 살아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성파 스님은 검은 색으로 알려진 옻칠의 일반적인 개념을 깨고 빛깔의 스펙트럼을 무한 확장시켰다. 이와 더불어 한국화의 일부로만 알려져 있던 민화를 우리 회화의 중심축으로 옮겼다. 특히 전통 그림의 재료가 먹과 석채 · 분채라는 틀을 깨고 옻칠민화를 한국화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옻칠의 시간성과 상반되는 민화의 속도감 및 쾌활함이 하나의 화면 속에서 응축된 완결성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55)384-0010.

고려가 그린 원효와 오늘날이 그린 원효


금강삼매경소를 짓는 원효.

삼성현역사문화관 특별전 '고려가 그린 원효'

12월 6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고려 기록 현대적 해석한 현대미술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는 어떤 모습일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는 제각각이다. 어떤 인물은 혹독한 악평에 시달리다가 재조명을 받기도 하고, 어느 순간 잊히기도 한다.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2022년 특별기획전으로 고려시대의 역사 기록물과 이를 현대미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고려가 그린 원효' 를 개최한다. 12월 6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원효의 발자취를 좇았던 고려시대 사람들의 기록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그린 그림들을 선보인다.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콜라보 작업을 통해 유물과 미술작품의 조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문인들이 남긴 〈대각국사문집〉, 〈삼국유사〉 그리고 요나라의 불교주석서인 〈석마하연론통현초〉에 등장하는 원효를 현대미술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화쟁' 으로 대변되는 원효 스님이 살았던 신라시대 사람들은 원효를 존경하고 빼어난 인물로 칭송했다. 고려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대각국사 의천과 보각국사 일연은 원효의 사상과 철학을 재음미했다. 의천은 송나라 및 요나라에 원효의 저작을 서신과 함께 보내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섰다. 한편 고려 후기의 승려였던 일연은 〈삼국유사〉를 지으면서 '원효불기' 즉 원효는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고 이해했다. 일연이 그린 원효의 모습은 백성과 함께 거침없는 무애춤을 추고, 소의 두 뿔 사이에서 〈금강삼매경소〉를 짓는 등 완전한 무애인이었다. 686년 3월 30일 원효 스님이 입적한 이후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나날이 주목을 받았고, 그 명성은 다시금 동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신라시대가 끝이 나고 고려 왕조가 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때에도 원효에 대한 존승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살' 과 '성사' 의 칭호가 그를 따라다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원효대사는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시대를 뛰어넘는 유연한 사상과 철학을 가진 고승이었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린 원효대사의 모습이 오늘날 경산에서 삼성현(三聖賢, 원효 · 설총 · 일연)으로 존경하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원효 스님의 입적으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오늘,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깨달음을 추앙했던 고려의 찬미와 헌사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의 화가들이 참신한 시각과 재조명을 통해 완성한 그림과 삼성현역사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이다. 고려가 그린 원효가 오늘날의 대중이 그리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는지를 느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2015년 4월 경산시에 역사적 연원을 둔 원효 · 설총 · 일연[삼성현(三聖賢)]의 업적과 의의, 사상적 우수성 등을 조사 · 연구 · 교육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에 위치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개관 이래 특별기획전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술총서를 간행했으며,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분하여 '학교 밖 역사이야기' 와 '삼성현 어린이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

매일 제대로 하는 명상, 치유 진전 최고 방법



나를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
데보라 킹 지음/사은영 옮김
김영사 펴냄/1만 6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 각자가 지닌 치유의 힘을 일깨우는 에너지 힐링 실천 워크북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변호사이며, 저명한 에너지 힐러인 데보라 킹의 두 번째 한국어 책이다.

생생한 차크라 활용법이 돋보인 스테디셀러 〈진실이 치유한다〉 출간 이후 6년 만에, 의식 확장과 치유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기초부터 심화 · 응용까지 알차게 담았다. 한국에 처음 소개하는 여덟 번째 이상의 상위 차크라, 의식 확장을 위한 이니시에이션, 방어기제를 통찰하는 5가지 마음/몸 유형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치유, 부정적 에너지 처리, 공간 정화, 그룹 치유, 치유를 돕는 호흡법과 명상법 등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구체적인 연습법, 전문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소개한다. 글로벌 자기계발 교육 기업인 마인드밸리서 인기리에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과 코칭, 건강과 수행을 위한 다채로운 지침을 제공한다.

이제 나로부터 새 삶의 방식이 시작

저자의 전작 〈진실이 치유한다〉는 20대 때부터 변호사와 모델로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던 저자가 암에 걸렸음을 알게 된 후 자기 치유의 여정에 들어선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다이애나 왕세자비, 오프라 윈프리, 빅토리아 베컴, O. J. 심슨 등 유명인들의 실제 사례를 곁들여 에너치 치유의 기본인 차크라 체계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도왔다. 이번 책인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는 〈진실이 치유한다〉에서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에너지 힐링의 깊고 새로운 영역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명상법과 심오한 기술로 가득하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로, 새롭게 발견한 다양한 테크닉을 소개한다. 또한 책에는 반려동물 치유법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영적 가이드나 명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우 유용한 도구인 '5가지 마음/몸 유형' 도 배울 수 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이해하게 된다.

차크라는 일곱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적인 일곱 가지 차크라, 즉 척추 아래부터 머리 꼭대기까지의 차크라는 지구에서 당신의 진화를 나타낸다. 더 높은 차크라는 당신의 상위 자아 및 우주 전체와의 융합을 돕는다. 상위 차크라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지만, 삶의 희로애락을 따라 영성이 진보하면서 풀려나도록 해야 한다. '소울 스타(soul star)' 또는 '영혼의 별' 로 불리는 여덟 번째 차크라는 정수리 차크라서 약 60센티미터 위에 위치하며 전체 차크라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한다. 또 신체, 감정체, 영체를 보호하고 차크라 시스템을 흠뻑 적시는 신성한 에너지의 뿌리 역할도 맡는다. 정수리 차크라와 여덟 번째 차크라 사이에는 별의 통로(Stellar Gateway)가 있다. 여덟 번째 차크라 차원에서 진동하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보살' 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자기계발 교육 기술 기업인 '마인드밸리(MindValley)' 에서 성황리에 강의한 내용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특히 '다섯 가지 마음/몸 유형(Mind/Body Types)' 을 책의 2부에서부터 비중 있게 다룬다. 일종의 '방어기제로 파악하는 MBTI' 라 할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로도 소개된 다섯 가지 심리학적 유형 분류이다. 자신과 타인의 트라우마 및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 체계를 에너지 힐링의 측면서 더 세밀하게 분석해, 우리가 교묘히 감추고 있거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정된 패턴들을 드러내 전인적인 치유에 이르도록 활용법을 안내한다.

저자는 "나는 에너지 치유의 관점에서 마음/몸 유형을 가르친다. 감정이 육체와 차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이다. 일단 마음/몸 유형으로 식별하는 법을 익히면,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체계는 사람을 빠르게 읽어내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중략) 방어기제가 나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어기제를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 어떤 유형으로 행동하는지 잘 살펴보고 자신의 습관적 반응을 이해하면 점차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공한 저자, 암에 걸린후 시작된 치유
'부정적 에너지' 종류와 다루는 법 소개
치유에 도움되는 호흡법과 정화법 설명

저자는 '의존하는 유형(오럴Oral)' 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요구가 많고,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유형은 다른 사람을 능숙하게 조종하고 목소리가 낮고, 질문이 많다. 또한 이들은 신체적 움직임보다는 말로 하는 지적인 활동을 선호한다. 근육이 거의 없고, 가슴이 꺼져 있다. 어깨가 아래로 처지고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눈은 애원하는 강아지의 눈이다. 에너지 대부분이 보통 머리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에너지는 낮다. 영화 〈레미제라블〉서 팡틴 역을 맡은 앤 해서웨이가 보여준 모습이 의존하는 유형의 완벽한 예이다. 제이크 질런홀이 영화 〈브로크 백 마운틴〉에서 보여준, 사랑해달라며 애원하는 눈빛 또한 의존하는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에너지 측면서 보면 의존하는 유형은 세 번째 차크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코드를 연결하려고 한다.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정적 에너지(Dark energy)' 의 종류와 이를 다루는 방법도 자세히 소개한다. 대중매체에도 자주 등장하는 우리 주변의 '에너지 뱀파이어'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유형의 부정적 에너지와 심령 공격을 구분해 설명하고, 대응법까지 제시한다. 오프라인 워크숍서 반드시 가르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인 '킬레이션' 과 반려동물 치유, 소리 치유, 영적인 가이드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습법과 함께 안내한다. 유명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가 인디언 치유사 돈 후앙에게 배웠다는 스위핑 호흡법은 물론, 치유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호흡법과 효과적인 정화 방법도 소개한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부정적 에너지 코드는 '스위핑 호흡(Sweeping Breath)' 을 연습하면 상당히 쉽게 교정할 수 있다. 방법은 이번 장 뒷부분에 설명해 두었다. 어떤 경우에는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코드보다 더 강력하게 암흑 에너지를 보내는 힘인 '위압적 벡터(vectors of force)' 를 소개한다. 벡터는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마치 당신을 향해 조준된 화살과 같다. 만약 당신이 벡터의 대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장 마지막에 설명하는 '적극 되돌림(Advanced Recapitulation)' 을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심령 공격을 멀리하려면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강한 에너지 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당신 에너지 소모

에너지 뱀파이어(energy vampire)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부풀리는 성향으로 '드라마의 여왕' 이라 불린다. 사소한 실수도 큰 비극처럼 말하며 모든 것을 불평하는데, 특히 질병의 경우엔 극에 달한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당신의 주의를 끌고 긍정 에너지를 훔친다. 남을 비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부류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만나고 나면 피로감, 슬픔이 밀려오고 우울해진다. 긍정 에너지가 빠져나가 허무하고 피곤하게 느껴진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12장에서 배운 마음/몸 유형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저자가 에너지 치유에서 매우 강조하는 '명상' 을 여러 장에 걸쳐 설명한다. 차크라나 에너지 치유를 다루는 책들이 단편적 지식의 나열이나 몇몇 테크닉의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데 반해, 저자는 언제나 그 모든 기법들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의도(intention), 주의(attention)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데서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느낌과 감정, 생각을 구분하고, 자신의 견해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며, 에너지 치유의 모든 행위 자체가 매 순간 '의도와 주의를 훈련하는 과정' 이 되도록 안내하는데,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명상' 이다. 일반적이고 안전한 '마음챙김 호흡' 이나 더 간편한 만트라 명상, 명상을 보충하는 방식으로서의 소주천 훈련 등, 치유를 위한 명상법을 세심하게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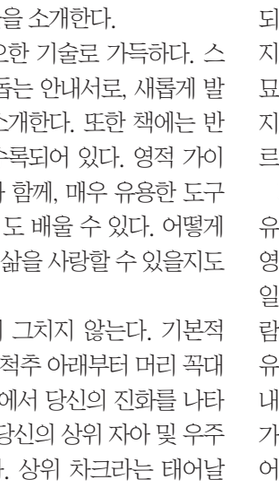
누군가 내게 치유의 비밀을 물어오면, 첫 번째로 항상 '명상' 을 꼽는다. 명상이 에너지 치유의 중요한 도구인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이 명상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이다. 명상은 주의를 집중하고, 생각 사이의 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당신을 보편적인 우주 에너지 장으로 연결한다. 매일 제대로 하는 명상이야말로 치유의 진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단순히 5~10분씩 가만히 눈 감고 있는다거나, 멍 때리고 앉아있거나, 부드러운 음악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이 목소리로 안내하는 명상을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우선 제대로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됨과 동시에, 자신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것과 같음을 자신의 삶과 자료로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에너지 치유' 를 건강 증진의 대안적 기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고 참신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건강하게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제안한다.

▲저자 **데보라 킹**은?

세계적인 에너지 힐러. 미국 상류층 변호사 집안 출신이지만 그녀의 10대 시절은 아버지의 폭행과 약물중독, 자기학대의 연속이었다. 20대에 전도유망한 변호사가 되었으나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고 자기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다. 현대적인 치유 기법들은 물론, 고대로부터 전해오던 동서양의 효과적인 치유 방법을 섭렵하여, 깊고 섬세하게 내담자의 마음을 다루면서 강력한 효과를 내는 독창적인 치유 기법으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암과 약물중독은 물론, 가족에게 대물림된 끔찍한 폭력의 상처들을 모두 극복하였고, 암벽등반 중 추락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던 남편까지도 정상인으로 되돌려 놓았다. CNN, ABC, NBC, FOX 등 TV 뉴스에 출연하여 셀럽과 일반인 등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치유 자문을 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 전문 출판사 헤이하우스의 인터넷 방송 인기 강사이기도 하다.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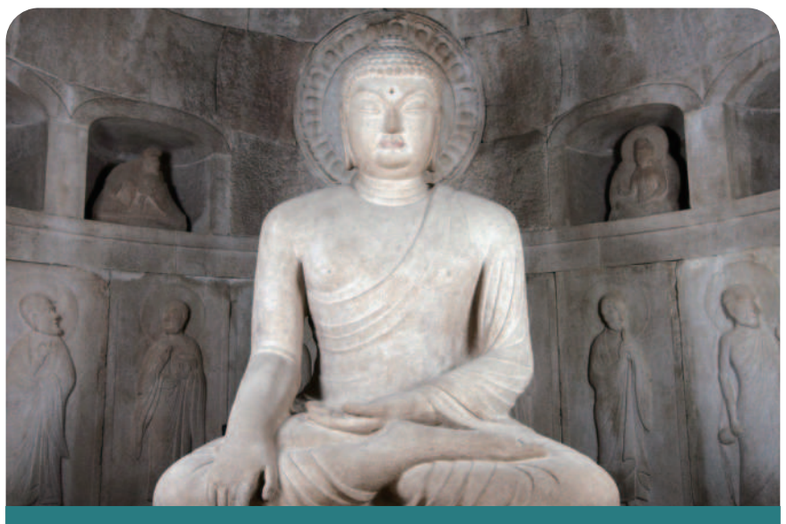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4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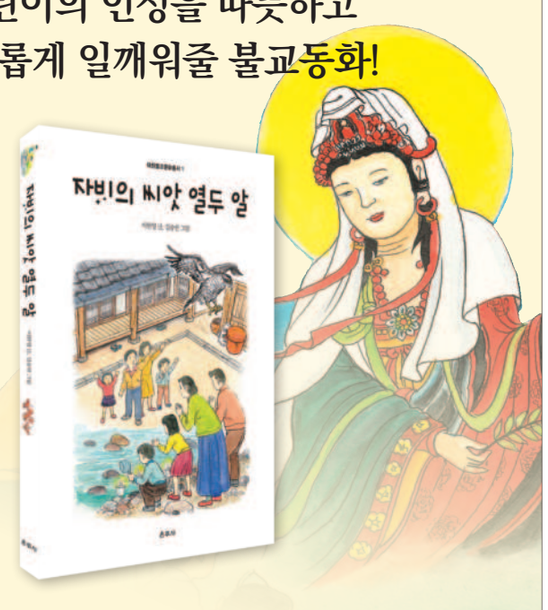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7~12/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철스님의짧지만큰가르침	원택	장경각
2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3	눈으로듣고귀로읽는붓다의과학이야기(진화생물학과뇌과학,불교를만나다)	김성철 지음	참글세상
4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5	고요함의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6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닦는마음밝은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지음	용화
8	초기불교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9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10	요가근본경전	이태영 편역	여래

책세상

“근본적 선함이 인간의 핵심이다”



쓰지 않은마음
타라 브랙 지음
비키 알바레스 그림
한문화 펴냄/1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우리 시대 가장 저명한 명상가 중 한 명이자,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 ‘타라 브랙’이 전하는 진정한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혐오와 의심을 넘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가치로, ‘근본적 선함(Natural Goodness)’을 말한다.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부족하게 여기든,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얼마나 많은 폭력과 불평등에 사로잡혀 있든 ‘근본적 선함’이 인간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이런 선한 마음을 그동안 쓰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회적 판단과 가치를 계속해서 내면화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반짝이는 황금, 즉 선한 마음을 망각하고 말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할 때조차 진정한 본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빛은 흐려지지도 더럽혀지지도 약해지지도 않으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헤매고 다니든 얼마나 절실히 찾아다니든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저자 자신이 일상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부터 불교에서 전해져오는 설화, 틱낫한, 잘랄루딘 루미, 토머스 머튼 등 대표적인 영적 스승들의 일화까지 책 속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50가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고 진정한 치유와 자유에 이르는 관문을 발견하는 경험에 이를 것이다.

내 안 선함 신뢰하고, 타인 선함 알아차리기

타라 브랙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우리가 미래에는 지금보다 좀 더 현명하고 애정 어린 사람으로 변할 거라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올바른 훈련을 하고, 올바른 스승을 찾고, 올바른 책을 읽은 후,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어서야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열망하는 모습은 자신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은 우리가 아직 모든 일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움츠러드는 대신, 우리의 가슴이 삶의 그 어떠한 도전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믿고 내 안의 선함과 타인의 선함을 신뢰하라고 격려한다.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저자의 조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위로와 위안을 안겨준다.

영적 스승 일화 등 50가지 이야기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있다”
명상, 내면을 정기적 방문하는 일

일상 변화시킬, 강력한 명상 주제 만나다

이 책에서는 명상을 ‘자신을 되찾는 일이자 자신의 내면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매일 잠시나마 고요히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두려움과 불확실성, 혼돈이라는 진흙에 파묻힌 진주(자신의 선한 본성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 속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명상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나 당신을 괴롭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마주한 내면의 가장 강력한 악마는 무엇인가?’ ‘고통에 저항하는 대신 모든 것이 알맞은 자리에 있다고 인정한다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의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분노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그 강력한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바라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 ‘자신의 취약하거나 부적절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 가식이나 겉치레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행동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등의 질문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영적 여정 담긴 경험담과 서정적인 삽화

타라 브랙은 명상가이기 전에, 저명한 임상심리학자로서 어려움에 부닥친 많은 이들을 상담해왔다. 명상과 심리학을 접목한 그녀의 전작들이 대부분 내담자와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냈다면, 이 책은 저자 자신이 겪은 고통과 갈등, 고뇌에서 비롯한 것이다. 젊은 시절의 타라 역시 많은 이들이 그러한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혐오와 불신에 휩싸였으며, 세상과 분리된 채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렸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를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고 생각해 왔다. 그녀는 그 무엇에도 창의적인 감흥을 느낄 수 없었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기분도 느낄 수 없었던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시절에 ‘명상’을 만났으며, 명상이 자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다고 고백한다. 타라 자신의 이런 진솔하고도 공감 가는 경험담은 독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안겨줄 것이며, 영국의 젊은 예술가인 비키 알바레스가 그린 서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삽화와도 잘 어우러져, 책장을 넘기는 동안 눈과 마음이 모두 위로받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타라 브랙**은?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대표적인 불교 명상가. 산타바바라에 있는 필딩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워싱턴 통찰명상 공동체를 창립했다. 35년 넘게 위빠사나(마음챙김) 명상을 위주로 수행하고 가르쳐온 그녀는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불교명상을 결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그의 첫 책 〈받아들임〉은 출간 즉시 화제를 모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현재 타라 브랙은 스피릿록 센터, 오메가 인스티튜트, 크리팔루 등 미국 전역의 집중수행 센터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불교의 사회적 의미를 살리는 다양한 불교 평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는 괴로움의 씨앗과 행복의 씨앗이 동시에 존재한다”



틱낫한마음
틱낫한 지음/윤서인 옮김
불광 펴냄/2만1천원

이 책은 마음 실체를 철저히 분석하는 유식불교를 바탕으로 우리 마음의 속성과 작동 원리를 풀어낸다. 이를 바탕으로 괴로움보다는 행복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이라는 넓은 밭에 심어져 있는 씨앗들 중 선한 것은 더욱 키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선한 씨앗으로 거듭나도록 변환하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다. ‘마음대로 하라’ 든가,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다’ 같은 표현들 말이다. 이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하고 싶은(생각하는) 대로’의 의미이지만,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생각’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기억, 의지 등 ‘마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만큼이나 우리 마음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마음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종교와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탐구되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음의 구조와 작동원리 등을 철저히 분석한 불교의 유식학이다.

이 책은 4세기 인도의 승려이자 학자였던 세친이 저술한 〈유식삼십송〉과 〈유식이십송〉을 바탕으로 하여, 틱낫한 스님이 유식불교를 알기 쉽게 풀어낸 불교심리학 안내서다. 틱낫한 스님은 세친의 이 두 가지 저술부터 〈화엄경〉 가르침까지 포용하여 50편의 게송을 새롭게 정리하여 ‘유식오십송’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그 50편의 게송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마음의 속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명쾌하고도 깊이 있게 설명한다. 또한 마음의 속성과 작동 원리를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우리가 어째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하며, 수행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모든 수행의 바탕이 되는 기본서’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마음이라는 밭에 긍정적인 씨앗을 더 많이 심어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부정적인 씨앗은 더 이상 늘어나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지닌 씨앗이 어떤 것인지 정체를 알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분노나 미움, 질투나 시기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신 알아차리고 받아들인다면 오래지 않아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당신 삶 변화시키는 〈유식오십송〉
알아차림 할 때 마음속 씨앗이 변화해
유식불교 쉽게 풀은 불교심리학 안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깊이 관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본성을 볼 수 있다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어리석음(번뇌)과 곧 행복의 지혜(깨달음)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깨달음의 본성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틱낫한**은?

오늘날 선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자 세계적인 교육자로 70년 가까이 ‘마음다함(mindfulness)’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었으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1982년 보르도에 명상 공동체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다. 2008년부터 교육 분야에 마음다함을 도입하기 위해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여러 학교와 대학에서 훈련 과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022년 1월 21일 베트남 후 티우 사원 내에 있는 거처에서 입적했다. 1백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불기 2567(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임인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7(2023)년 계묘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6780-9190	배철완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문화사업단	010-3048-4008	구광국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4

▶ 95회 예고
아쇼까왕은 또 다시 삼보디 순례를 준비한다. 이에 띠쉬아락시따 정비는 삼보디 삡팔라나무를 없애버리고자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발각되어 화형을 당한다. 6년 뒤 꾸날라의 아들 삼빠딘은 병석에 누운 아쇼까왕으로부터 왕권을 탈취한다.



담마사절단, 이웃나라로 떠나다

건기인데도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졌다. 빗방울이 굵고 짧은 소나기였다. 소나기가 뚝 멈추자마자 지평선 가까운 하늘에 쌍무지개가 떴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내일 담마사절단들이 각국으로 떠나는데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했다. 빠딸리뿌뜨라 성민들도 하늘이 축복을 내리는 것이라고 환호했다.

아쇼까왕은 담마사절단의 활동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다. 그런 바람으로 담마사절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하나는 이웃나라 왕들의 환심을 끌어내기 위해 그 나라 지방에 사람과 동물을 치료하는 의료진료소를 지어주었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 넘나드는 국경지방에 다음과 같은 바위칙령을 새기게 했다.

〈나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염원한다. 국경 너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에 대한 왕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를 정복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나의 유일한 의도는 그들이 나를 믿고 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며 그들에게 불행이 아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웃나라에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바위칙령을 통해 침략하지 않겠다고 왕의 이름으로 약속함으로써 담마사절단이 가더라도 이웃나라의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환대받게 하자는 것이 아쇼까왕의 의도였다.

다음날.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침 일찍 왕궁으로 가서 아쇼까왕에게 보고했다. 마힌다는 전날 인사를 미리 했으므로 따라가지는 않았다. 아쇼까라마에는 아쇼까왕이 하사한 대왕코끼리 두 마리가 점잖게 대기하고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가 산치까지 타고 갈 대왕코끼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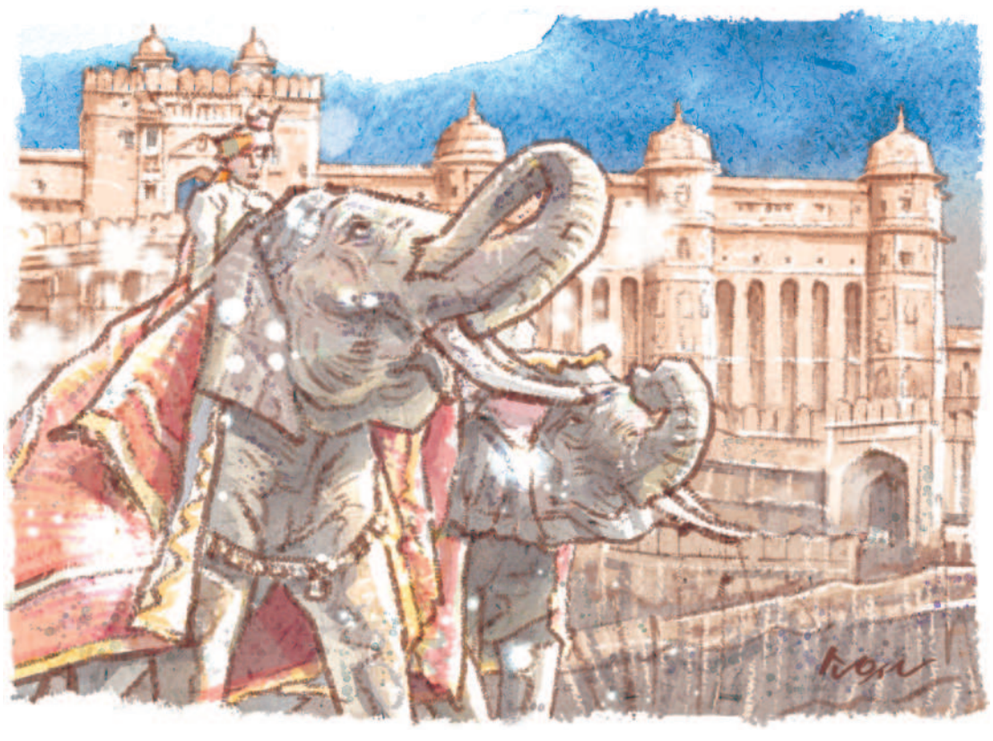
마힌다는 땅바빵니 담마사절단 대표였다, 장로는 아니지만 상가밋따의 아들인 수마나 사미도 땅바빵니 담마사절단과 동행하기로 했다. 땅바빵니 담마사절단 및 각국의 담마사절단들 앞에서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장로들은 오직 세상사람들에게 헌신한다는 자비심을 내어 이웃나라로 가서 훌륭한 담마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가르치시오."

마힌다 옆에는 담마사절단을 이끌고 간다라와 까슈미라로 가는 맛잔띠까(Majjhantika) 장로가 앉아 있었다.

"담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경지방 사람들과 6백 요자나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담마사절단들에 의해 퍼져나갈 것이오. 대왕님은 오래 전에 전쟁터의 북소리로,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시었소. 그러나 담마에 의한 정복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따라서 이웃나라 왕과 백성들은 담마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오."

각국의 담마사절단이 아쇼까라마를 벗어나자, 빠딸리뿌뜨라의 모든 성민들이 거리로 나와 장로들의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전송했다. 아쇼까왕은 늙은 마하데바라 수상과 함께 미리 강가 강변에 나와 임시군막에 있었다. 환송연을 위한 임시군막이었다. 마하데바라 수상은 깔링가국 정벌 때만 해도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렇지 못했다. 건강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아쇼까왕과의 잦은 이견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했다. 아쇼까왕 군대가 깔링가국을 정벌하고 나서 15만 명의 포로로 끌고 온 뒤였다. 아쇼까왕과 마하데바라 수상, 그리고 군부대 대장들이 포로들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회의하는 자리였다. 아쇼까왕은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선언했으니 포로들을 풀어주고 싶어 했다.

"나는 다야강에서 북소리를 멈추고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맹세한 왕이오. 15만 명의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도 담마를 실천하는 일이오. 60만 군대까지 해산한다면 나는 진정한 담마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오. 수상의 생각은 어떻소?"

"대왕님이시여,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깔링가국 정벌 때 우리 군사들이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포로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포로들은 희생당한 군사를 대신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석주를 운반하고, 도로를 닦고, 우물을 파고, 약초밭을 일구는 등의 일은 포로들의 몫입니다."

마하데바라가 반대하자, 들떠 있던 자축 분위기가 금세 가라앉았다. 경비대장이나 코끼리부대 대장도 마하데바라의 반대의견에 동조하는지 침묵하기만 했다. 아쇼까왕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국경지방 바위에 이웃나라를 정벌할 의도가 없다는 칙령을 새겼소.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 의료진료소를 세워주고 약초밭을 일구어주었소. 그러니 이웃나라 왕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을 것이오."

"나라와 나라 사이는 호의만 가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빈틈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를 정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의 불문율입니다."

"담마의 정복자가 되겠다는 나의 의도는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이오.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고서야 어찌 담마의 정복자라고 할 수 있겠소?"

이에 마하데바라가 소리 내어 울면서 하소연했다.

"대왕님시여, 늙은 저는 깔링가국 정벌이라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 포로를 풀어주고 군대를 해산하시겠다는 말씀에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해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웃나라의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하데바라가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완고하게 나오자 아쇼까왕이 이맛살을 찌푸렸다가 펴면서 말했다.

"좋소. 수상의 의견을 참고해 미구에 결정하겠소."

"대왕님이시여, 이제는 정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코끼리부대 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왕님이시여, 수상님의 의견을 어떻게 참고하시겠습니까?"

"담마사절단을 파견해 본 뒤 결정하겠소. 이웃나라 왕들이 담마사절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소?"

아쇼까왕의 고집도 마하데바라처럼 강했다. 담마사절단을 받아들이는 이웃나라 왕들의 마음을 확인한 뒤 군대해산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마하데바라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않았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군대해산을 유예시킨 것만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담마사절단을 환송하는 임시군막에는 아쇼까왕과 마하데바라 말고도 왕실 왕족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아상디밋따 정비와 띠쉬아락시따 왕비, 상가밋따 장로니, 삼빠딘 등이 아쇼까왕 뒤에 앉아서 담마사절단을 기다렸다. 왕궁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환송연은 시작부터 달아올랐다. 북소리와 현악기들의 합주가 강가강 너머로 울려퍼졌다.

이윽고 대왕코끼리 두 마리가 나타났다. 대왕코끼리는 아쇼까왕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짐승인데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가 하사받아 타고 있었다. 대왕코끼리 뒤로는 담마사절단인 수십 명의 장로들이 합장한 채 걸어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는 수만 명의 사문들이 〈초전법륜경〉을 외며 따라왔다. 강가강에 모인 성민들이 일시에 꽃을 뿌리고 박수를 쳤다.

이윽고 아쇼까왕이 임시군막에서 나와 맨 먼저 도착한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의 땅바빵니 담마사절단을 맞았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여, 나는 오늘을 기다렸소. 담마사절단의 장로들은 담마의 정복자인 나의 진정한 군대요. 세상을 담마가 넘쳐나는 땅으로 만들어주시오."

"대왕님이시여, 담마의 군대는 이웃나라는 물론이고 지중해 연안의 나라 에피루스, 마케도니아, 키레네, 이집트, 시리아까지 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내에 있는 담마마하마따와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은 담마도 가르치고 대왕님께서 주신 외교적 임무도 다할 것입니다."

"오, 장로여. 그대도 떠나기로 한 것이오?"

"아닙니다. 저는 원래대로 산치까지만 갔다가 대왕님께서 명하신바 그곳의 석주와 탑 조성을 감독한 뒤 돌아올 것입니다."

마침내 아쇼까왕이 임시연단에 올랐다. 그러자 왕궁악단의 연주가 멈추었다. 아쇼까왕이 담마사절단의 장로들을 보고 외쳤다.

"장로들이여! 나는 전쟁터의 북소리를 담마의 북소리로 바꾸었소. 장로들이여, 그대들은 나라와 나라 간에 우호를 위해 선발돼 가는 사신이오. 그러나 외교만을 위한 사신이 아니라 특별하고 훌륭한 사신들이오. 담마를 가르치고 담마를 전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오. 그대들을 나는 담마로 무장한 장수라고 부르겠소."

이번에는 마힌다가 전체 담마사절단을 대표해서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저희들은 대왕님의 뜻을 받들어 담마를 전하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대왕님께서 담마의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다하겠습니다."

빠딸리뿌뜨라 성민들이 담마사절단 장로들에게 다가가 노란색 꽃으로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짬빠나무 흰꽃을 뿌렸다. 허공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처럼 환송연 자리가 하얗게 변했다. 이윽고 담마사절단 장로들은 각자 정해진 배로 가서 승선했다. 그사이에 마힌다는 병색이 더 깊어진 아상디밋따에게 다가가서 합장을 했고, 상가밋따는 마힌다를 따라가는 수마나를 찾아가서 손을 잡았다.

"수마나여, 나도 곧 땅바빵니로 갈 것이다."

"어머님은 왜 늦으시나요?"

"땅바빵니 사신들에게 삼보디(보드가야)의 삡팔라나무 가지를 꺾어가기로 약속했단다."

"예, 기다리겠어요."

아쇼까왕은 배들이 떠나기 전에 대왕코끼리를 타고 곧 왕궁으로 돌아왔다. 총애하는 삼빠딘에게 지시할 건이 있었다. 상가밋따가 삼보디로 갈 때 동행해서 신변을 보호하라는 지시였다. 상가밋따가 여성장로이므로 신변보호에 신경을 더 써야 했다. 뿐만 아니라 아쇼까왕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난 담마사절단 장로들의 건강도 걱정했다. 아쇼까왕이 마하데바라에게 말했다.

"수상이여, 담마사절단 장로들 중에 병이 나서 돌아오는 이가 생길지 모르겠소."

"대왕님이시여,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섯 명보다 많은 숫자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가 나에게 건의한 바 있소. 발병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 생겨 전법을 포기하는 장로가 있을 것이니 담마사절단의 인원이 다섯 명보다 많은 열 명은 돼야 한다고 말이오."

"대왕님이시여,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쇼까왕이 담마사절단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누구보다도 컸다. 담마사절단이야말로 자신이 꿈꾸었던 담마의 정복자를 실현시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㉔ 마조 도일(馬祖道一)



▶ 한줄 요약
마조는 〈단경〉의 사상을 온전히 계승하여 더욱 직접적인 언구로 그를 표현하였고, 나아가 다양한 기연어구(機緣語句)가 담긴 선문답(禪問答) 등의 제접법(提接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경〉 온전히 계승해 직접적 언구로 표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당조(唐朝)는 안사(安史)의 난 이후 점차 쇠락하게 되는 시기에 혜능(慧能)의 남종선(南宗禪)은 오히려 천하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것은 파촉의 성도(成都)에서 신라 출신의 무상(無相)이 피란한 현종(玄宗)의 귀의를 받았고, 하택(荷澤) 신회(神會)가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데 절대적인 공로를 세웠으며, 남양(南陽) 혜충국사(慧忠國師)가 숙종(肅宗)과 대종(代宗)의 귀의를 받아 제도(帝都)에서 18년에 이르도록 교화했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으니, 모두 혜능의 문하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강서(江西)와 호남(湖南) 지역에서도 마조 도일(馬祖道一)과 석두 희천(石頭希遷)이라는 불세출의 선승들이 출현하여 각각 그 지역의 법주(法主)를 맡아 혜능의 남종선을 선양하였다. 송대 지반(志磐)이 찬술한 〈불조통기(佛祖統紀)〉에서는 "육조 이후 두 파(派)를 이루었는데, 하나는 청원 행사(靑原行思)이고, 행사는 석두 희천에게 전하였으며, 그 문하에 조동(曹洞)·운문(雲門)·법안(法眼)을 이루었다. 다른 하나는 남악 회양(南嶽懷讓)으로, 회양은 마조도일에게 전하였고, 그 문하에 임제(臨濟)·위앙(潙仰)을 이루었다. 이렇게 오가종파(五家宗派)가 되었으나 도(道)는 하나일 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마조와 석두로부터 조사선의 오가(五家)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고승전〉 권9에는 "강서(江西)의 법주는 대적(大寂: 馬祖)이요, 호남(湖南)의 법주는 석두로서 서로 왕래가 끊이지 않아 두 대사(大士)를 친견하지 못한다면 (도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라는 기사로부터 마조와 석두 두 선사의 문하는 서로 왕래하면서 남종선을 선양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신라의 선사들이 중국에서 구법(求法)하고 귀국하여 성립한 '구산선문(九山禪門)'은 대부분이 마조계열이며, 나아가 한국 불교의 적통(嫡統)을 마조계로부터 출현한 임제종(臨濟宗)으로 설정하고 있으니, 우리 불교의 전통에서는 마조 도일(709~788)이 더욱 친밀하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마조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마조의 전기는 〈경덕전등록〉 권6과 〈송고승전〉 권10에 전기가 실려 있으며, 그 외에 수많은 전적에 그와 관련된 자료와 일화들이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마조는 한주(漢州)의 십방(什邡: 현 四川省 什邡市 馬祖鎭) 출신이며, 속성은 마(馬)씨라고 한다. 마조는 용모가 기이하고, 소걸음에 호랑이 눈길이었으며, 혀를 내밀면 코를 덮고, 발바닥에는 두 개의 바퀴 무늬가 있었다고 한다. 어려서 자주(資州), 즉 본향의 당화상(唐和尙)에게 출가하였으며, 유주(渝州: 현 重慶市)의 원(圓)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마조가 출가한 은사는 바로 당화상, 즉 처적(處寂)으로 정중종(淨衆宗)을 건립한 신라의 무상(無相)선사의 스승이니, 무상과는 같은 문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밀(宗密)의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 권3에는 "검남(劍南) 사문(沙門) 도일(道一)은 속성이 마 씨로 김화상(金和尙)의 제자이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여기에서 김화상은 바로 무상선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중국에서 법계(法系)를 논할 때 그 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사승(師承)을 정하기 때문에, 비록 마조가 무상에게 사사 받았다고 해서 무상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마조와 무상의 선사상은 결코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회양(懷讓)을 만나기 전에 무상으로부터 선법을 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후대에 신라의 구법승들이 마조계열을 찾은 원인에는 이러한 무상과의 인연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조는 개원(開元) 연간에(대체로 735년으로 추정) 형산(衡山) 전법원(傳法院)에서 머물면서 종일 좌선(坐禪)하였는데, 이는 무상으로부터 사사 받은 선법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상은

당화상 은사 출가 원율사 구족계
무상에게서 선법 사사 가능성 커
습공산 보화사서 28년 동안 설법
마조의 '평상심'과 '돈오' 후 '마음'

"매번 입정(入定)하여 5일을 넘겼다."라는 기사가 보일 정도로 선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시 회양이 마조를 보고 법기(法器)임을 간파하고서 마조를 깨우치는 유명한 '마경(磨鏡)'의 고사가 출현한다. 회양은 마조가 좌선하는 암자의 문 앞에서 벽돌을 갈고 있었는데, 마조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며칠 동안 계속되자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고, 회양은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든다고 답하자 마조는 벽돌로 어찌 거울을 만드는가를 물었다. 그에 회양은 "소가 마차를 끄는 것에 비유하자면, 마차가 만약 가지 못하면, 소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마차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교계(敎誡)하였다. "네가 좌선을 배움에, 좌불(坐佛)을 배움이 된다.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禪非坐臥]. 만약 좌불을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상(相)이 아니다. 머무는 법이 없는 곳에서, 마땅히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네가 만약 좌불한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요, 만약 좌상(坐相)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조는 대오(大悟)하였다고 한다. 이 고사는 〈마조어록〉과 〈경덕전등록〉, 〈고존숙어록〉 등에 실려 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로부터 '선비좌와(禪非坐臥)'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당연히 이는 〈육조단경〉으로부터 연원한 사상이다.



마조 도일 진영.

이렇게 회양으로부터 깨달음을 열고서 마조는 십여 년간 회양의 문하에 머물다가 남악을 떠나 남방의 건양(建陽) 불적령(佛迹岭: 현 福建省 南平市 建阳區)에 이르러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하여 그곳에 머물렀고, 후에 임천(臨川: 현 江西省 撫州市)으로 옮겼다가 다시 건주(虔州: 현 江西省 贛縣)의 습공산(襲公山) 보화사(寶華寺)에서 28년 동안 법을 펼쳤다. 그 후 대력(大歷) 4년(769), 홍주(洪州: 현 江西省 南昌市)의 개원사(開元寺: 현 佑民寺)에 머물면서 법을 펴자 사방에서 학인들이 운집하여 크게 행화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홍주종(洪州宗)'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마조어록〉과 〈경덕전등록〉에 따르면, 마조는 정원(貞元) 4년(788) 정월에 건창(建昌)의 석문산(石門山: 현 江西省 宜春市 靖安縣)에 오르다가 "나의 썩을 몸이 다음 달에 이곳에 귀속하리라."라고 하였는데, 2월 4일에 미질(微疾)이 일어나 목욕하고 가부좌를 틀고 입적하였다고 한다. 원화(元和) 연간에 대적선사(大寂禪師)라는 시호를 받았고, 탑호를 대장엄(大藏嚴)이라고 하였다.

마조의 제자들은 "입실(入室) 제자가 139명으로 각 지방의 종주(宗主)가 되었다."라고 하듯이 상당히 많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제자로는 백장회해(百丈懷海), 서당 지장(西堂智藏), 남전 보원(南泉普願), 귀종 지상(歸宗智常) 등이 유명하고, 백장 문하에서 위산 영우(潙山靈祐)가 위앙종(潙仰宗)을, 또한 백장의 또 다른 제자인 황벽 희운(黃檗希運)의 제자인 임제 의현(臨濟義玄)이 임제종(臨濟宗)을 열었다.

마조의 선사상은 상당히 방대하지만, 이른바 '도불용수(道不用修)',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즉불(卽心卽佛)' 등은 중국선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익히 알 정도로 유명하다. 따라서 간략하게 그를 논하기로 하겠다. 〈마조어록〉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한다. "도는 닦음을 쓰지 않으니[道不用修], 다만 오염되지 말라. 어떻게 오염되는가? 다만 생사의 마음이 있어 조작하고 좇아가면 모두 오염이다. 만약 바로 그 도를 알고자 하면 평상심(平常心)이 도이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이르는가? 조작(造作), 시비(是非),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성(凡聖)이 없음[無]이다." 여기에서 명확하게 '도불용수'와 '평상심시도'의 사상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평상심'에 대한 규정은 결코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바로 "조작·시비·취사·단상·범성"이 없는 상태가 '평상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시비·취사"가 없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취하고 버리는 행위가 없다면 100m도 못가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 당연하다. 마조의 '평상심'은 바로 '돈오(頓悟)'를 이룬 후의 '마음'이다. 또한 '도불용수'도 역시 '돈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상태이다. 이는 〈마조어록〉의 다음과 같은 문답에서 도출할 수 있다.

승려가 물었다. "어떠한 것이 수도(修道)입니까?" 답하였다. "'도'는 '수(修)'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수'를 통하여 얻는다면, '수'로 이룸은 또한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성문(聲聞)과 같을 것이다. 만약 '불수(不修)'라면 바로 범부와 같을 것이다.

이로부터 마조는 바로 '무수지수(無修之修)'를 제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단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조의 '즉심즉불'도 또한 '돈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흔히 '마음이 부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심한 오해이다. '심'에 '즉'했을 때 '불'에 '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의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고 심오한데, 이른바 '중생즉불(衆生卽佛)'이나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중생즉불'이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의미일까? 중생과 부처의 관계가 '즉'이라는 의미이지 절대로 같다는 것은 아니다. 〈단경〉의 사상적 핵심을 '즉심즉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마조의 사상은 그대로 〈단경〉에서 제시하는 사상과 거의 같다. 그에 따라 〈단경〉의 사상적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조의 사상 역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짧은 지면에 그를 모두 논증할 수는 없지만, 마조는 〈단경〉의 사상을 온전히 계승하여 더욱 직접적인 언구로 그를 표현하였고, 나아가 다양한 기연어구(機緣語句)가 담긴 선문답(禪問答) 등의 제접법(提接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마조의 선사상적 의의라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㉓ 옹고집전과 부처님 본생담



▶ 한줄요약
고약하고 인색함의 대명사인 옹고집의 이야기를 그린 옹고집전은 부처님 전생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는 '팔리어 자타카'의 78번째 이야기 '일리사 전생담(Illisa Jataka)'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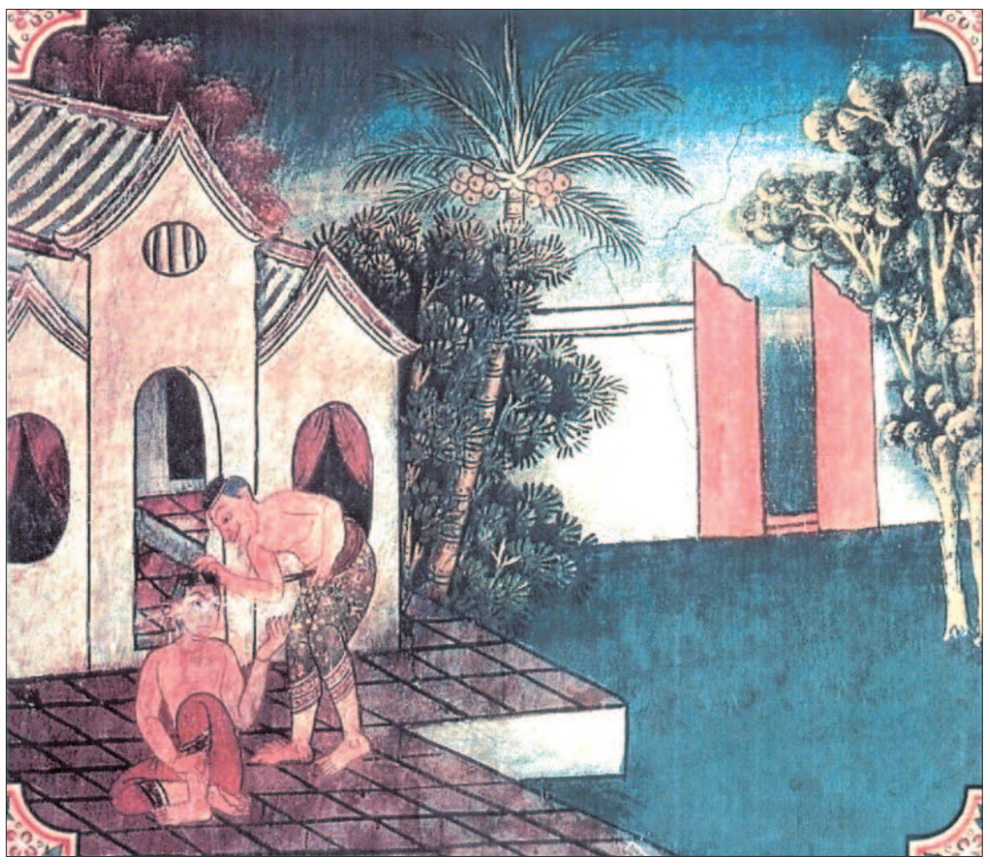
고전소설 '옹고집전' 기원은 부처님 전생설화

2022년 한 해 동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토끼전' '고려장 이야기' '장끼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심청전' 등의 동화 혹은 설화들의 기원을 부처님의 본생담에서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서 불교 설화는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오랜 시간 동안 토착화 혹은 융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래동화나 고전소설 속에 스며 들어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좀 더 찾아보기로 하였다.

욕심쟁이 놀부에 버금가는 고약하고 인색한 옹고집이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기원했다면 아마도 놀라실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 '옹고집전(雍固執傳)'은 조선 시대의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로서, 원래 판소리 열두 마당의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판소리로는 전해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상기해서 '옹고집전'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그림① 〈옹고집전〉의 1950년대 국문 필사본. 옹고집의 개과천선기가 주요 내용이다.



그림② 태국 방콕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사원 벽화 '일리사 자타카'의 부분. 15세기 조성됐다.

"옹진골이라는 마을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질이 고약해서 먹을 것이 풍족한 풍년을 좋아하지 않고, 매사에 이유 없이 고집을 부렸다. 또한 인색하여 팔십 노모가 겨울철 냉방에 병들어 있어도 돌보지 않았다. 이때 월출봉 비치암에 도술이 능통한 고승의 제자인 학대사에게 옹고집의 그릇된 행동을 꾸짖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학대사는 옹고집의 하인들에게 매만 맞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고승은 옹고집을 벌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적을 붙이니, 옹고집과 똑같은 옹고집이 하나 더 생겼다.

고승이 만든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의 집에 가서, 둘이 서로가 진짜라고 다투게 되었다. 옹고집의 아내와 아들은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를 판별할 수 없어서, 마침내 관가에 가서 판별을 청하게 되었다. 고을의 사또가 옹씨 집안의 족보를 가져오라고 해서 물어보니, 진짜 옹고집은 조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오히려 가짜가 그 내력을 더 잘 대답하였다.

결국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내쳐져 걸식을 하는 신세가 되었고, 가짜 옹고집은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살게 되었다. 그 뒤로 옹고집의 아내는 가짜 옹고집과의 사이에 아들을 여러 명 낳고 잘살고 있으나, 진짜 옹고집은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뒤늦은 후회로 어쩔 도리가 없음을 안 진짜 옹고집이 죽음을 택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비치암의 고승이 홀연히 나타나서 이를 말렸다. 고승은 옹고집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알고, 부적을 하나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집에 돌아가서 그 부적을 던지니, 그동안 집을 차지하고 있던 가짜 옹고집은 허수아비로 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짜 옹고집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모두 허수아비로 변하였다. 이후 옹고집은 새사람이 되어서 착한 일을 하고,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늘 보시와 공덕을 행했다고 전해진다."(그림①)

이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옹고집전'의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그런데 이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547편으로 구성된 '팔리어 자타카'의 78번째 이야기 '일리사 전생담(Illisa Jatak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다.

구두쇠 주인공을 벌할 가짜 등장해
진짜 내쫓고 결국엔 진짜 개과천선
옹고집전 · 일리사 전생담 같은 내용
일리사 전생담, 태국사원서 도상화

"일리사라는 부자 구두쇠가 살았는데 그는 조상으로부터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남을 위해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보시와 공덕을 쌓아서, 죽어서 하늘의 제석천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제석천이 하늘에서 자신의 아들 일리사가 아버지가 지은 자선의 집을 헐어 버리고, 찾아오는 걸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내쫓는 것을 내려다봤다.

지옥에 가기에 알맞은 아들의 행동을 깨우치기 위해, 제석천은 아들 일리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몸을 바꾸어 지상으로 내려왔다. 제석은 먼저 왕을 만나러 왕궁으로 가서 일리사인척 행동하며 왕에게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일리사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왕이 사양하였다. 그러자 일리사의 집으로 간 제석은 일리사의 아내에게 이제부터 어려운 이들에게 보시를 하자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부인이 찬성을 하자 하인들을 불러 금은보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일리사 장자의 집으로 오라고 전하였다.

곧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상자와 자루를 들고서 대문 앞에 모이자, 제석은 창고를 열고 보물을 마당에 내어 놓았다.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담아 가게 하였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일리사의 수레에다 소를 매서 칠보를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가며, 일리사의 어짊과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지나갔다.

마침 나무 그늘에 혼자 숨어서 술을 마시던 진짜 일리사가 이를 보고 나의 것을 훔쳐간다고 화를 내자, 이것은 일리사 장자가 보시한 것이라며 수레를 몰고 가 버렸다. 이상함을 느낀 일리사가 자기 집으로 달려갔으나, 가짜 일리사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은 진짜 일리사를 그의 집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왕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왕도 심지어 일리사의 아내와 아이들조차도 아무도 진짜 일리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다.

그러자 진짜 일리사의 머리카락 속에 커다란 사마귀가 있다는 비밀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인 일리사의 이발사가 궁전으로 불려왔다. 이 이발사는 다름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의 먼 전생의 인물로서, 제석이 자신의 머리에도 똑같이 사마귀를 만들자 진짜 일리사가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었다. 욕심쟁이 일리사가 마지막 희망을 잃고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자, 제석천이 공중에 떠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었다. 생전에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선행을 즐겼기 때문에, 죽어서 천신들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제석천의 이야기를 들은 일리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선의 집을 다시 지어 자선을 베풀겠다고 맹세했으며 평생 이 약속을 지켰다. 그때의 왕은 아난의 전생이었으며, 제석의 깨우침을 막지 않은 이발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일리사 전생담'의 이야기는 팔리어 자타카의 547장면을 모두 도해한 태국 방콕의 왕실 사원 왓 크루아완 와라위한(Wat Kruawan Worawiharn)사원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높은 담장과 크고 넓은 건물, 멋진 야자수가 있는 정원 등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짐작하면 그림 속의 공간은 일리사의 집으로 추정이 되며,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은 일리사와 석가모니의 전생인 이발사일 것이다.

흰 건물의 앞에 앉아서 왼손을 들어 무언가를 청하는 인물이 일리사 그리고 왼손에 가위를 들고 허리를 굽혀서 일리사의 머리를 들여다보는 인물은 이발사로 보여진다. 배경이 일리사의 집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제석이 일리사를 벌주기 이전 이발사가 일리사의 머리를 자르는 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일리사와 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인물인 이발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②)

'옹고집전'의 기원에 관해 '장자못 전설'과 '쥐 둔갑설화'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신이 내린 벌로 악인이 대홍수를 만나 죽음에 이르는 '장자못 전설' 그리고 변신이라는 공통점만을 가지고 있는 '쥐 둔갑설화' 보다는 '일리사 전생담'이 훨씬 많은 공통점과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리사 전생담'에서 언제 어떻게 '옹고집전'으로 이어졌는지에 관한 영향관계 및 전승의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인색한 부자 구두쇠, 주인공과 똑같은 인물의 등장, 가짜에게 쫓겨 난 진짜, 시련을 통한 깨달음, 보시의 중요성, 불교에 귀의함 등 여러 공통된 이야기를 통해서 옹고집전의 기원에 대해서 기존의 의견을 재고하며 불교의 세계성과 전파력에 또다시 놀란다.〈끝〉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원스톱 시스템이란?
수 없이 겪는 법당 현장이지만 심오한 사찰 음향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부근 지방 업자들의 단순 기술시공 결과! ..... 염불 스트레스 누적과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명품사운드 훈련강사 서울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인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 최고 시설로 많은 절약과 후회가 없다는 뜻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들어보세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사찰 시설비용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명품 Sound
명품소리 훈련강사 박 공 희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6 대탑 4회랑과 화엄경



▶ 한줄 요약
보로부두르대탑 4회랑은 대탑이 화엄대탑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있다. 4회랑에서는 53선지식 보현보살에게 묘각의 불지에 이르는 가르침을 받는 부조상이 재현돼 있으며 이는 대탑이 〈화엄경〉 화엄계위의 흐름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엄대탑 정체성 보여주는 4회랑



보로부두르대탑 4회랑 주벽 1면. 대탑 4회랑주벽 72부조상을 6분류로 나눴는데 그중 첫 번째 분류로 상하 2단구조이다.

보로부두르대탑의 4회랑은 대탑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회랑이다. 4회랑의 부조상의 내용은 3회랑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대탑 1·2·3회랑과 유기적으로 연관선상에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화엄경〉 계위적 입장에서 4회랑에는 입법계품의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리도에 이르는 법을 설하는 장면들과 선재가 마침내 법계와 불계에 이른 장면들이 나와야 한다. 이 계위는 52계위의 마지막 묘각의 자리로 불지에 이르러 보현보살과 부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4회랑의 주벽 부조상 72면은 보현보살과 선재동자가 대부분 출현해 입법계품과 중송분(보현행원찬)에 등장하는 보현보살과 선재동자 중 어느 쪽인지 단순히 부조상을 통해 둘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보쉬(Bosch)가 '보현행원찬'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4회랑 소의 경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돼 왔다.

따라서 경전과 부조상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4회랑 주벽 72부조상을 특징별로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현행원찬'과 〈화엄경〉 '입법계품'을 배대해야한다. 앞글에서 보현행원찬의 내용과 4회랑 부조상이 불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글에서는 〈화엄경〉 '입법계품' 중 53번째 선지식 보현보살을 선재동자가 찾아 불가사의한 경계를 보고 보현보살의 원과 행을 체험하고 듣고 행하여 부처의 경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한글 〈대방광불화엄경 5권〉의 494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부조상과 배대한다. 경전의 내용은 등장인물과 내용에 따라 11단락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부조상과 관련된 경전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쉽게 대응시킬 수 있다.

먼저 72부조상을 6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류는 상하 2단 구조로 72부조상 중 12부조상이 있다.

4회랑 주벽 부조상 1·2·10·14·18·53·54·58·59·69·71·72이 해당되며 상단은 부처상이 주로 등장한다. 불상은 한 존에서 17존 부처님까지 다양해 시방세계의 무수히 많은 부처세계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72부조상 중 18부조상으로 중앙 정각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보현보살과 선재동자가 부처님을 친견하는 모양들이다.

4·5·7·11·13·15·17·21·22·23·26·40·57·61·62·68·70 부조상이 해당되며 부조상 중앙 정각 속에 가부좌 부처님을 친견하고 보현보살이 선재에게 부처세계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장면으로 여겨진다. 선지식을 친견하고 보리도를 닦아 보현보살의 인도 하에 선재의 수행정도가 부처의 세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곳은 선재의 선근과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과 보현보살 선근의 힘으로 보게 되는 상서로운 10가지 모양의 경구들을 상당 부분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은 72장면 중 30장면은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고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법을 전하거나 보여주는 장면이다.

주벽부조상 19·24·25·27·28·30·31·32·33·34·35·36·37·38·39·41·42·43·44·45·46·48·49·51·52·55·60·63·64·66으로 전체 42%에 해당한다. 여기서 42·46·48·49·60은 보현보살이 서서 어떤 행동을 하는 장면이고, 41번은 정각에 쿠션이 있는 장면이다. 그 외 24장면은 보현보살이 정각에 앉아서 선재동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다.

이는 선재동자에게 법을 전하는 보현보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형이상학적 표현의 입체화를 위한 반복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전 분류 중 한글 〈대방광불화엄경 5권〉 497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가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불가사의한 경계를 지켜보는 부분이 대부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네 번째 유형은 72장면 중 20·56·65 등 세 장면으로 세 번째 분류처럼 중앙 정각에 보현보살이 앉아 있고 선재동자가 친견하는 모양이나 이번에는 부처님이 등장한다. 이는 보현보살이 선재에게 어느 부처의 경계를 말해주는 모습일 것으로 사료된다.

5번째 유형은 72장면 중 7장면으로 2층 구조로 위층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좌우 협시로 모시고 있고 아래층은 보현보살과 선재동자를 위시해 여러 보살이 위쪽 불보살들을 친견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래 조각상은 위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조성되어 있다. 부조상 3·6·8·12·16·47·50번이 해당한다.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다른 부처의 세계를 설하고 있는 모습이다.

1~4회랑, 화엄경 바탕으로 조성
4회랑서 보현 보살 가르침 받은
선재 동자 묘각의 불지에 이르러
'화엄경' 화엄계위 흐름을 연결해

6번째 유형은 독창적 부조상으로 유일하게 문수보살이 중앙에 출현하는 67번이다. 이 연꽃은 문수보살을 상징한다.

다음은 한글 〈대방광불화엄경 5권〉의 494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 보현보살이 선재에게 묘각의 가르침을 주는 내용을 11단락으로 나눈다. 이러한 경전 분류는 4회랑 부조상 분류 작업 결과와 대조 분석이 가능해 시각적 구별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사상적 일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분석 범위를 줄여주어 보다 정확하게 비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11단락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선재동자가 일심으로 문수보살을 친견하기를 염원하다가 보현보살의 해탈 경계를 관찰하고, 보현보살을 친견하고픈 원력으로 선재는 여러 마음의 경계를 체험한다.

②선재동자는 여러 마음의 경계를 체험한 후 자기 선근의 힘과 그로 모든 여래의 가피하신 힘과 보현보살 선근의 힘으로 부처님 세계의 10가지 상서로운 모양이 일어남을 보았다(경전 pp.495-496). 부조상 IVA1, IVA2, IVA3, IVA5, IVA7, IVA9, IVA10, IVA11, IVA15, IVA22, IVA40, IVA51, IVA63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선재동자가 여러 마음의 경계를 체험한 후 자기 선근의 힘과 그로 모든 여래의 가피하신 힘과 보현보살 선근의 힘으로 모든 세계에 10가지 광명한 모양을 보았다. 부조상 IVA2, IVA8, IVA53이 해당한다.

④선재동자가 보현보살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기 전에 보현보살의 부사의한 경계를 지켜본다. 4장면으로 4회랑 주벽에 보현보살을 형상화하기 좋은 부분이다(경전 pp.497-501). IVA4, IVA13, IVA18, IVA23, IVA24, IVA25, IVA30, IVA31, IVA32, IVA33, IVA34, IVA35, IVA36, IVA37, IVA38, IVA39, IVA40, IVA42, IVA56,IVA59, IVA65, IVA70이 해당한다.

⑤선재는 보현보살의 부사의한 경계 4가지를 지켜보고 열 가지 지혜 바라밀을 얻는다. 보현보살을 향한 믿음과 의존이 깊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⑥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부사의한 경계를 보면서 바라밀을 얻은 뒤에는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그 정수리를 만지었고, 정수리를 만진 뒤에는 곧 모든 부처 세계의 티끌 삼매문을 얻었다(경전 pp.501-502)

⑦한 곳의 모습이 시방세계에 동시에 펼쳐지는 법계의 보편성을 보여준다(경전 p.502) IVA17이 해당된다.

⑧드디어 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의 신통한 경계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여쭈어보니 보현보살이 그간의 수행행적에 대해 대답을 한다(경전 pp.502-505). IVA19, IVA26, IVA27, IVA28, IVA29, IVA41, IVA43, IVA46, IVA47, IVA49, IVA52, IVA55, IVA57, IVA61, IVA62, IVA64, IVA68이 해당한다.

⑨선재동자가 보현보살의 과거 행적을 다 듣고 보현보살을 다시 보니 보살의 부사의한 경계가 일어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경전 pp.505-507). IVA17, IVA20, IVA50, IVA69, IVA53, IVA54, IVA66 부조상이 이곳에 해당한다.

⑩보현보살의 부사의한 경계 속에 자신을 본 선재동자는 이제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보현보살의 원과 행을 행하는 모습이다.(경전 pp.506-507.) IVA68, IVA71 부조상이 배대된다.

⑪선재동자의 그간 보현의 원과 행을 이룩한 결과로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상과 같이 4회랑 부조상에 대한 비정을 위해 입법계품 중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설법하는 경전의 내용을 11단락으로 구분 후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부조상들과 배대해 해당 단락과 짝을 이뤘다.

그 결과 4회랑 주벽의 부조상이 경전의 입법계품과 상당히 연관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4회랑의 부조상의 내용은 2회랑에서 1-51선지식을 통해 이뤄지고 3회랑에서 51선지식 미륵보살의 가르침으로 등각의 경지에 이르고, 마침내 이 4회랑에서 53선지식 보현보살에게 묘각의 불지에 이르는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화엄경〉 화엄계위의 흐름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탑 4회랑의 부조상들은 십지품을 재현한 대탑의 10층 구조와 함께 보로부두르대탑이 화엄경대탑임을 보이는 강력한 증표이다.

〈동국대 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멸성제 증득 못하면 사성제 의미 없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㊼ 멸성제(滅聖諦)

〈원문〉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에서 세 가지는 항상함이 없는(無常) 것이요, 한 가지는 항상한(常)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세 가지 진리(三諦)는 유위(有爲)의 모양(相)에 들어가는 것이니, 유위의 모양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항상함이 없는 것이요, 항상함이 없는 것은 바로 허망한 법이며, 허망한 법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非諦), 항상한 것이 아니고, 의지할 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제(苦諦)·집제(集諦)·도제(道諦)는 제일의제(第一義諦)가 아니며, 항상한 것이 아니며, 의지할 데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한 가지 진실한 법(一苦滅諦)은 유위의 모양을 여의었으니, 유위의 모양을 여읜 것이라야 항상한 것이며, 항상한 것은 허망한 법이 아니며, 허망한 것이 아닌 법은 곧 진실한 것이며, 항상한 것이며,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진실한 법(滅諦)만이 가장 으뜸가는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第一義)가 됩니다."

〈강설〉 사성제(四聖諦) 불교 근본 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불교의 인생관, 생활관, 수행관이 모두 사성제에 다 나타나 있다. 부처님의 초전 법륜의 핵심이 사성제인데 이 대목에서는 사성제를 무상(無常) 유상(有常)으로 구분하여 각 제(諦)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고제(苦諦)·집제(集諦)·도제(道諦)는 항상함이 없는 것이고 멸제(滅諦)만이 항상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멸제(滅諦)를 제외한 삼성제(三聖諦)는 유위의 모습이라 하여 최후의 궁극적인 진리(第一義諦)가 아니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사성제는 괴로움의 결과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 열반을 얻는 수행의 인과관계와 방법론을 설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승만경〉에서는 사성제의 참뜻이 멸성제에 있는 것이라 하여 고제, 집제, 도제는 진정한 성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성제(四聖諦)가 설해진 동기가 멸성제(滅聖諦)를 증득하기 위하여 설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으뜸가는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第一義)를 멸성제(滅聖諦)라고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길장(吉藏)의 〈승만보굴〉에서는 유작사성제(有作四聖諦)와 무작사성제(無作四聖諦)를 합하여 팔제(八諦)라고 하면서 유작사성제는 소승의 사성제로, 완전하지 못하고 궁극적이지 않아 언젠가 다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 했고, 무작사성제는 대승의 사성제로, 완전하고 궁극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닦고 조작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 천태 지의(天台智顗)는 교상(教相)을 구분하여 장교(藏教), 통교(通教), 별교(別教), 원교(圓教)에 짝을 맞추어 사종사제(四種四諦)를 내세웠다.

1. 생멸사제(生滅四諦) : 장교의 설로서 유위의 생멸 현상에 대하여 사제의 인과에 진실로 생성과 소멸이 있다고 보는 것.

2. 무생사제(無生四諦) : 통교의 설로서 인연소생의 모든 법은 생성과 소멸이 없는 공(空)이라는 관점에서 사제와 미오(迷悟)의 인과가 없다고 보는 것.

3. 무량사제(無量四諦) : 별교의 설로서 모든 현상이 인연으로부터 발생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차별을 갖추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성제도 무수한 차별이 있다고 보는 것.

4. 무작사제(無作四諦) : 원교의 설로서 미오(迷悟) 그 자체가 실상이라는 주장으로 비록 대립과 모순으로 나타나는 미오의 경계가 다르지만 둘 다 실상이라고 보는 것.

〈승만경〉의 이 장(章)에서는 괴로움이 없어지는 진실한 법 한 가지를 강조하여 멸성제를 증득하지 못하면 사성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인 최후의 진리인 제일의제(第一義諦)는 성문이나 연각의 수행으로는 완전히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 놓았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몸·호흡·마음 조화·알아차림 등 중요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⑳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4. 참선 중 몸·호흡·마음 조절법

불자 여러분! 다음은 참선 중에 있을 때 몸과 호흡과 마음을 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선 중에 있을 때 몸을 고르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선을 시작한 지 1시간이나 3시간 정도 경과할 때 항상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챙겨서 몸과 호흡과 마음이 고르게 조화가 되고 있는지 혹은 조화가 되지 않아서 고르지 않는지 그 양상에 대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선에 들어갈 때[入禪] 몸을 조절하였다 하더라도, 1시간 내지 3시간이 경과하면 참선 중에 현재 몸이 느긋한지[寬], 급한지[急], 기울었는지, 굽었는지, 엎드렸는지, 쳐다보고 있는지, 갖추지 못한 것이 있는 지 등등을 모두 잘 살펴 알아야 합니다.

만약 참선 도중에 몸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몸을 자세와 몸가짐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자세를 조절해야 합니다. 참선 중에는 몸이 느긋하거나 급한 것이 없도록 하여 항상 몸이 편안하고 온화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평직(平直)하게 바로 세워서 올바르게 머무르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선 중에 몸이 조화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호흡 또한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호흡이 고르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르지 않아서 그 호흡의 모습이 풍상·천상·기상으로 숨이 급하거나 맺히고 온몸 속에 가득 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호흡이 고르지 못하다면 올바른 방법을 써서 법에 따라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호흡은 항상 숨결이 가늘고 천천히 면면히 이어져서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선 중에 몸과 호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가라앉거나(沈)·들뜨거나(浮)·느긋하거나(寬)·급하거나(急)게 되어 조화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먼저 올바른 방법을 써서 알맞고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몸과 호흡과 마음의 3가지를 고르게 하는 것에는 앞뒤(前後) 순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고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조화롭게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와 같이 참선 중에서도 몸의 자세와 호흡의 양상과 마음 모양을 잘 살펴서 항상 조화로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참선에서 나올 때 몸·호흡·마음

불자 여러분! 다음은 수행자가 참선이 끝나고 선정에서 나오려고 할 때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참선이 끝나고 선정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마음을 다른 연(緣)에다 묶어놓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천천히 숨을 토해내면서 숨결이 모든 혈관과 세포들로부터 마음에 따라서 발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어깨와 견갑(堅甲)을 움직이고 나서 손과 팔을 움직이며 이어서 머리와 목을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발을 움직여 모두를 부드럽게 합니다.

다음은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온몸의 모든 털구멍을 두루 비비며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두 눈에 가만히 대고 가볍게 눈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열과 땀이 식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참선을 마치고 좌선에서 나와야 합니다.

만일 이런 과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두통이 생길 뿐만 아니라 모든 뼈마디가 시리거나 아프게 되고 더 심하면 몸살이 난 것처럼 심한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몸의 상태가 이런 통증으로 불편하게 되면 그 후에 이어지는 참선 중에는 마음이 번잡하고 초조하여서 선정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선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항상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려서 몸과 호흡과 마음을 잘 조절하여서 참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㊼ 공(空)에 대한 작은 경

'色'이라 말할 것 없어 空이다

"거기에 없는 것을 공으로 관찰한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있으므로 '있다'고 분명히 안다. 아난다여, 이것이 진실한 것이며 전도되지 않은 것이며 청정한 것이며 공의 현현이다."

눈으로 사물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어디를 주시하면서 "있다"라고 말하며, 눈으로 사물이 "없다"라고 말할 때, 어디를 주시하면서 "없다"라고 말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자. 사람들은 항상 현재를 기점으로 시각에 들어온 사물의 유무에 따라 '있다/없다' 라고 말하거나, 시각의식으로 지각한 느낌에 연상되는 이미지의 유무(有無)에 따라서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이 올바른 인식인가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눈에 보이고 의식에 인식되는 형상이나 이미지를 누가, 어떻게, 떼어내서 그것만을 따로 볼 수 있는가? 눈으로 떼어내 본 것은 개체의 눈으로 보이는 일부분일 뿐이지 나머지가 사라진 상태는 아니므로 그것만을 보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체는 그것을 '있다' 와 '없다' 로 확실하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오류를 범하지만 오류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개체의 눈과 의식은 각각의 개체마다 보고 지각하는 대상을 다르게 인식한다. 개체마다 다르게 인식하므로 개체가 알고 있는 그 대상은 개체의 의식 속에 있는 상상된 이미지일 뿐이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보이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는 그것은 사물로서 존재하는 존재성을 말함이지 개체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혼란은 개별적 자아인 '나[我]' 가 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상태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체로서 '나[我]' 의 눈과 '나[我]' 의 의식은 조건을 여읜 근원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보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경험된 정보를 통해 주관화된 것이므로 실재의 입장에서는 나타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혹 객관적 관점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나[我]' 의 눈과 '나[我]' 의 의식이 '있다' 고 아는 한 주관적 관점이나 객관적 관점은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 바탕이 '나[我]' 라는 것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넓혔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못한다. 근원은 객관적인 관점도 없고, 주관적인 관점도 없다.

〈반야심경〉에서는 근원의 봄이 무엇인지를 짧은 글 속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자세한 설명조차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색(色)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受想行識)도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색과 공' 은 일반적 인식에서의 '색과 공' 이 아닌데, 일반적 사고를 가진 뭇 삶에게는 색이 존재하고 공도 존재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인 개념에서 분석하여 이해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색' 이라는 것은 색이 생기기 전에 색(개체)으로 보고 있으므로 색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지, '색' 이라고 하는 실재 사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름이 없지만 이름을 붙인 것은 개체와 개체가 좁은 의미에서의 소통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색에 대한 올바른 관찰이다. 색(개체)이 색을 보고 판단하여 '텅 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 있다는 개체가 사라지면 보이는 색은 나타날 수 없다는, 진리의 본질을 이해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지 지나치게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사량(思量)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물에서 보이는 차원은 뭇 삶이 생각하여 "몇 차원이다"라고 한정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뭇 삶은 뭇 삶이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인식에서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보이는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한정적인 것으로 판단해버린다. 참으로 판단하는 것이 생기질 않을 때, 모든 사물이 공의 현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사대오온은 무지(無知)를 가지고 있고, 그 무지(無知)를 그대로 아는 힘은 스스로의 완전한 지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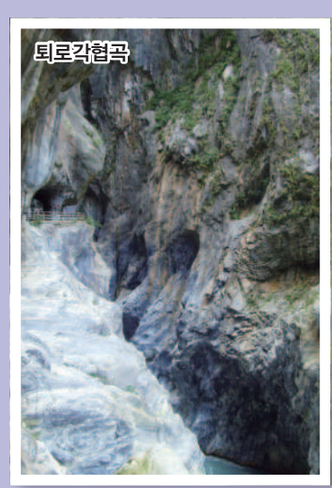
〈(사)여시아문 선원장〉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대만 성지순례 5일

지도법사 : 설오스님
법등사 주지, 유튜브 설오 스님TV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순례기간 : 2023년1월13일 ~ 1월17일(5일)

동참금 : ₩ 1,890,000원 / 현금할인가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30만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주세요.

▮ 주요일정 :인천-가오슝-불광사-대흥선사-도원(타이페이)-조개-쟈오시-화련-도원-인천
▮ 입금계좌 : 농협 301-0088-7942-11 예금주 : ㈜케이투어
▮ 여 권 : 출발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출국가능
여권사진이 나온 부분을(여권사본) 핸드폰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E-MAIL: ajetours@naver.com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6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 가전제품 보시 -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836번지 약 300평
- 4년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 절터, 산소자리 적합
- 3천5백만원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법당인등 1천불, 영가인등 1천불
- 100미터 지하석수, 실외 화장실 2개, 상수도, 5미터 도로, 심야보일러, 에어컨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2개월 전 완전 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5511-7000
010-3592-8975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거제시
사찰 법당 3채 및 요사 1채
대지 : 136평 규모
가액 : 3억원
가격 절충 가능

010-4509-4061

사 찰 안 내

- 익산마을 끝자락 조용한 곳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 산신각 요사채 문화재급 약사여래불 모심, 법당집기 일체 포함
- 사유지 포함 약 1,000평의 법당, 3억 5천만원

010-5581-3081

조그마한 사찰 양도 및 전 · 월세 안내

- 보증금 : 2천만 원
- 매 월 : 20만 원
- 몸만 오시면 됨 (일체 구비 됨)
- 양도합니다.

010-3938-46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 중 2층
- 법당 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3억원

010-4835-1739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 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요양시설 · 사찰 · 한방병원 · 펜션 안내

- 위치 : 남원, 구례 경계 국도변
- 토지 : 1만 650평
- 건물 : 12동 외 수영장, 주차장
- 특징 : 20만평의 편백숲, 청정계곡, 30여개 원두막, 지리산둘레길
- 가액 : 12억 5천만원 ※부동산 절대사절

010-3655-5651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6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5억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5년간 분할상환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 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사 찰 안 내

- 주소 : 창원시 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236-19
- 삼면이 멋진 바다 용궁사를 사정에 의해 양도, 양수합니다
- 건평 100평 1,2층, 대지 350평
- 전세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언제든지 입주 가능
- 한번 보시면 탄복합니다

010-4233-3459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16호 | 18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범음 · 범패

범음범패, 각단예불의식, 천수바라, 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전화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바라, 피리,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광복사 결혼상담소

짝을 만나 행복을

은평구 수색로 22길 20

010-5624-1365
02-306-7988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세종 명리심리 철학원

사주, 신년운세, 궁합, 택일, 작명
자녀진로, 적성, 진학, 취업, 진로

010-7371-2953

문자, 카톡 상담 환영합니다
톡상담 ID : sejong77

불상제작(용품) 전문점

(오래된) 불기, 불서 고가매입
법당철거, 법당제작, 탱화, 동북, 개금
-사찰 사고 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공양주 모십니다

- 영산법화사 홈피 : http://ysbuphwasa.org/
- 영산법화사 소개 :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입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2장, 기본증명서 1통
- 4대보험 가입 월급 195만원 ~ 250까지 (월 휴무 2일) 출퇴근도 가능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16 영산법화사
- 상담 문의 : 02)762-4922 / 담당 총무 도엽 010-8737-2766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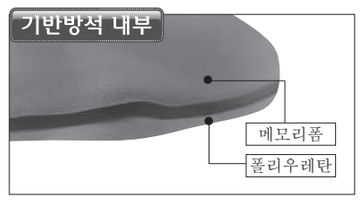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㉓ 차의 기능과 역할

항산화제 · 항노화제 들어 있는 차 마셔야

현대의 인류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 많은 편리함과 유익함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류의 먹거리도 그 중 하나다. 문명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가공의 제품들이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생산되고 있지만 인류는 그로 인한 자업자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넘쳐나는 먹거리와 음료는 영양과잉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어려움은 시작된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먹거리가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시대이다. 다양한 목적과 기능성을 지향하는 먹거리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중은 먹거리를 선택할 때부터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현대의 대중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많은 먹거리 가운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순수자연의 원재료다. 그것들에는 인공의 먹거리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천연의 음식과 음료에는 식물의 형형색색 밝고 아름다운 색깔이 담겨있다. 필자는 그 원재료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먹고 마시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식물성 식품에는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자주색, 등 매혹적이면서 건강에도 매우 좋은 색깔의 영양성분이 들어 있다. 식물의 색깔은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태양의 에너지와 토양의 에너지 그리고 물과 공기 속에서 자란 식물로 우리 몸은 항산화제를 섭취할 수 있다.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는 먼저 단당류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성분으로 바뀐다. 태양의 광합성을 통한 에너지는 먼저 단당류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성분으로 바뀐다. 다양한 식물 속 화합물질은 거의 식물에서만 발견된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며 이 모든 과정은 분자 사이의 전자교환으로 유도된다. 전자들은 에너지의 매개체이다. 햇빛에서 얻은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음식과 음료는 전자가 제자리를 벗어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며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프리레디컬 현상을 야기한다. 혈관 속 유익한 세포와 건강한 혈액을 공격하여 혈관염을 유발한다. 그러면 식물은 이런 복잡한 반응을 어떻게 해결하고 길 잃은 전자 활성산소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식물들은 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의 손에 의해 식물은 법제라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변형되어 만들어진 완벽한 생명 농축 액키스 차는 식물에 보호막을 씌운다. 변형된 식물의 차의 보호막은 황산화제로 만들어져 우리 몸에서 경로를 벗어나 헤매는 전자를 차단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과도한 전자를 흡수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색이 만들어지며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종류는 수 백 가지를 이룬다. 베타카로틴(호박의노란색), 리코펜(토마토의 붉은 색), 크립토크산틴(오렌지 색) 칼라가 없는 항산제도 있었다. 이런 종류는 아스코브로산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같은 성분들이 차에는 너무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단순히 태양광선이나 오염된 공기를 마시거나와 오염된 물만 닿거나 적절하지 못한 영양소 소량만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혈과 장기, 뇌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성향 자체가 응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우리의 혈관과 장기조직이나 피부조직을 응고시키고 굳고 단단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유도 없이 피부와 근육, 뼈가 점점 뻣뻣하게 굳고 여기저기에서 삐그덕 거린다. 이런 과정이 노화의 과정이다. 활성산소는 백내장과 시력 저하, 이명, 비염, 뇌질환 심혈관질환, 동맥경화와 암세포를 형성하고 폐기종을 만든다. 산화로 인해 노인이 되기도 전에 찾아오는 관절염과 만성통증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뇌질환과 치매 심장질환 등의 모든 병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몸속에 끝없이 들어오는 활성산소와 인스턴트 음식과 과당의 음료와 정크음식 페스트푸드, 찌든 기름이 담긴 음식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 병을 야기시킬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11월 한 달 동안 미국 뉴욕 뉴저와 베트남 등지에서 건강 강연과 차를 통한 디톡스와 명상을 함께 하였다. 단시간에 나타난 디톡스 결과와 몸속의 독소가 배출되면서 신경계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단시간 경험하며 많은 결과를 사람들에게 회자시켰다. 필자가 국내로 돌아온 지 3, 4일 만에 다시 필자와 한국에서 차를 마시며 디톡스를 하기 위해 먼 거리를 찾아온다고 스케줄을 묻는다. 필자가 1년에 걸쳐 연재한 차와 건강이라는 긴 내용의 핵심은 간단하다. 긴 수고의 과정을 통해 법제한 풍부한 항산화제 항노화제가 들어 있는 차를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기만 하면 된다.

더 이상 세상과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과 돈에 대한 집착된 생각에 사로잡혀 나와 내집단만을 생각하는 집단을 안타깝게 바라볼 필요 없이 자신 스스로 셀프케어인 차마시는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필자의 자연 힐링차를 함께 해주신 독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필자는 늘 마음정원에서 인연법에 의해 오신 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 만성통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언제라도 환영한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건강
㉓ 아버지의 생명 구한 소금

소금은 생명 살리는 생명 그 자체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 필자의 아버지는 그 중에서 좀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탄광 노동자로 징용에 끌려간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끌려간 지옥과도 같은 탄광 징용을 견디고 기적적으로 살아왔다.

징용으로 끌려갈 때 아버지는 두 딸을 둔 젊은 가장이었다. 어린 두 딸과 아내를 두고 일본으로 끌려간 것이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 일본의 탄광에서의 강제 노동은 인간 이하의 생활이었으며 매일같이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다. 매일 굶주림과 매질 그리고 사고의 연속으로 견딜 수 없는 나날이었다고. 그렇지만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이 있었고 언젠가 일본이 패망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는 해방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일제는 이질이 확산될 것이 두려워 병든 아버지를 탄광 인근 야산에 거의 버리다시피 감금했다. 안 그래도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인데 버려진 것이나 다름 없는 아버지에게 음식이 제대로 전해질리 없었다.

그때 기적처럼 은인이 한 사람 나타났다. 그 사람 역시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공부를 좀 했던지 일본 사람과 대화가 좀 되고 해서 일본인 일도 도와주고 있었다. 그렇게 질병과 굶주림과 싸우고 있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죽을 쑤어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지고 온 죽 위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었다고 한다. 고작 소금간이 전부였던 죽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그 죽은 황제의 식사 그 이상이었다. 아버지는 너무나 고마워 그 사람에게 큰절을 했다. 그렇게 가끔 일본인의 눈을 피해 가져다주는 그 사람의 식사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사실은 전날 일본이 항복 선언을 했는데 한국인한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날 밤 전부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도 없이 도망가 버린 바람에 땅속 탄광 갱도 속에 있던 징용자는 나오지도 못한 채 깊은 탄광 갱도 속에 고립되어 있어야 했다. 그 사람은 해방이 되어 일본인 관리자가 다 도망갔으니 갱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했고, 아버지는 그를 도와 갱도 속에 갇혀있던 징용자들을 구해냈다.



긴가민가하면서 지상으로 나온 그들은 그동안의 긴장과 허기, 피곤이 겹쳐 그냥 쓰러져 버린 사람도 많았다. 그들 중에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 그 사람은 일본인의 사무실과 숙소 창고 등을 뒤져서 먹을 것과 쓸 만한 것을 찾게 했다.

사람들은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 악랄했던 일본이 정말 패망한 것일까? 다시 돌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쨌든 일본인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따랐다. 창고에서 링거액과 주사기를 찾아내 심하게 탈진한 사람들에게 놓아 주었다. 아버지도 이질로 인한 후유증과 깊고 너른 탄광 속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탈진한 상황이라 그 주사를 맞고 기운을 차렸다. 아버지는 신기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그것이 링거액이며 즉 소금물을 희석한 것과 성분이 비슷한데 몸에 필요한 체액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몸에는 각종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를 보충하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기운을 잃고 쓰러지는 것은 먹지 못하거나 수분을 많이 빼앗겨서 몸에 체액이 부족하거나 그 속에 영양분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인데, 그때 몸에 그 링거액을 넣어주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아버지는 이중 삼중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심하게 탈진한 사람들은 주사를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창고에서 찾아낸 쌀로 식사 준비를 했다 그렇게 식사를 한 후 사람들은 그때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그 사람은 찾아낸 사무실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징용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라고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소금도 조금씩 가지고 가라고 했다. 밥은 안 먹고도 얼마쯤은 살 수 있지만, 소금은 그렇지 않으니 가지고 가다가 반찬 삼아 먹고 물을 마실 때 조금씩 타서 먹으라고 했다. 소금을 챙겨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누어준 돈과 소금을 가지고 고향의 집을 찾아 하나 둘 길을 떠났다.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된 지 10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아버지가 일본 땅을 종단하여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소금의 힘이라고 했다. 10개월의 굶주림과 힘듦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소금의 힘이라고 했다. 죽 위에 뿌려진 몇 알의 소금의 맛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링거액 주사를 맞으면서 경험한 소금의 힘을 아버지는 신앙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소금을 먹으며 걸었고 힘든 길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은 패망한 상황이라 일본인도 먹을 것이 없었다. 무법천지인 상황이라 민가에 가서 함부로 신세지기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운 좋게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일본인의 신세를 지기도 하고 야생의 과일이나 곡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면서 걸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소금은 아주 긴요한 반찬이자 맛을 내는 조미료이며 미네랄 보충제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고 했다. 그 사람이 나누어준 소금이 아니었다면 필자의 아버지는 그 고난의 시간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소금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 그 자체이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장 천공에 협착까지…
병마와 맞선 어린생명의 사투

베트남 출신 뚜안 · 보티캄터 부부 유학생 모임에서 만나 결혼
32주만에 태어난 아들 중환자실…현재 병원비만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⑫ AI 시대의 명상



▶한줄요약
4차 산업시대는 데이터가 발전의 토대, 명상의 효능과 사용자 데이터는 새로운 명상시장 개척의 원동력

마음챙김의 유저데이터, 명상 발전 디딤돌



필자는 2012년 9월부터 전방 군부대 법회 봉사를 다니고 있다. 바쁜 업무 일정으로 잠깐 쉰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햇수로 10년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꽤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 상도선원 사무량회 도반들과 돌아가면서 군법당 봉사를 하기 때문에 순번은 보통 1달 또는 2달에 1번 꼴로 돌아온다. 한번 가면 군법사로서 2군데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온다. 아침 9시에 철책선 안쪽에 있는 수색대대에서 일요 법회를 하고, 바로 이동해서 인근 10분 거리에 위치한 여단에서 10시 20분에서 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끝나는 일정이다. 지난주 일요일이 필자의 차례여서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했다. 법회에 갈때마다 간식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병사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준비했다. 치킨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멀지 않은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프렌차이즈 치킨점에 전날 주문해서 아침 8시 30분에 받아서 갔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는 조금 힘들지만 막상 도착해서 장병들 얼굴을 보면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군생활을 하면서 일요일에 법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다. 꾸준하고 참석하는 소수의 병사도 있지만 갈때마다 대부분 새로운 얼굴들이다. 짧은 법회 시간이지만 어떤 목적으로 왔던지 그 귀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려고 항상 고민한다. 오랜시간 군법회를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필자는 딱 두가지만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마음챙김 영어로 'minfulness'라는 단어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5분이더라도 꼭 명상실습을 하는 것이다. 명상이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서 과학의 영역에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장병들에게는 명상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습을 하는 이유는 1시간 강의를 듣는 것보다 단 1분이라도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경험이 명상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를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이해가 아닌 실천을 통해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군대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사병들도 일과 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챙김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보라고 추천도 하고 다양한 명상 어플을 사용해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장병들이 명상 또는 마음챙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했다. 명상의 필요성과 활용하려는 장병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질의 응답도 달라지고 있다. 경험과 지식이 생기다보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나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명상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 스마트폰일 것이다.

명상의 목적 중 하나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데 최적화된 도구가 명상이다. 누구나 삶 속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갈등을 겪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지칠 때가 있다. 젊은 사람들도 동일하다. 이런 힘든 순간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명상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 호흡만을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명상을 접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었다. 장병들의 사례처럼 스마트폰이 명상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출시된 명상앱이 2500여개 정도라고 하한다. 전세계 1등 명상앱인 캄(Calm)은 2021년 1억다운로드를 넘어섰다. 2026년까지 명상앱 시장은 연평균 13.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앱을 출시하면 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된다. 필자가 출시한 하루명상앱의 경우에도 현재 175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 오픈되어있다. 하지만 콘텐츠가 한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화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는 다르다. 전세계 공통어일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출시되면 전세계적 통용성을 확보하게 된다.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명상앱은 대부분 영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이다.

명상 앱 시장, 연13.4% 성장
'하루명상앱' 175개국에 보급
과학적 토대 위에 활용 늘어
명상관련의 빅데이터 갖춰야

최근 '명상하는 뇌'라는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대니얼 골먼과 리처드 데이비슨이다. 명상과학 분야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 서양의 1세대 명상가이자 뇌신경과학자이다. 책에서 저자들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 시절부터 현재까지 명상 수련과 명상 연구를 동시해 해오고 있는 그들의 기나긴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명상과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명상을 수련하는 길을 깊이를 추구하는 길과 넓이를 추구하는 길로 구분하면서 명상을 4개의 수준으로 구분하면서 미래의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먼저 깊이를 추구하는 길을 두 가지 수준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순수한 형태의 명상 수행법으로,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나 티베트 수행자들 또는 한국의 선 수행들이 수행해온 방식이다. 필자들은 이런 가장 집중적인 유형의 수련을 제1수준이라고 했다. 달라이라마, 마티유 리카드, 밍규르 린포체, 숭산 스님, 고엔카 등과 같은 분들이 이에 해당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수행의 전통적인 요소가 서구 사회로 전파되면서 승려나 수행자와 같은 삶의 방식이 일부 제거되고, 사구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형되어왔다. 아시아의 전통 수행 정신과 철학은 계승하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한 오해 혹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한 수행을 제2수준을 정의 했다. 잭 콘필드, 래리 로젠버그, 조셉 골드스타인, 샤론 샐즈버그 등과 같은 수행자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듯 하다.

깊이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넓이를 추구한 접근법도 존재한다. 제3수준에서는 동일한 명상 수련법들을 영적인 맥락을 제거해서 일반 대중에게 전파한다. 한국에도 이미 잘 알려진 존 카밧진이 창시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크리스토퍼 거머와 크리스틴 네프와 개발한 '마음챙김-자기연민 프로그램(MSC; Mindful Self-Compassion)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MBSR은 현재 수천 곳에 달하는 병원과 치료센터, 그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보급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초월 명상(TM; Transcendental Meditation)을 들 수 있다. 고전적인 만트라 수련자들이 초월명상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현대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제4수준으로는 훨씬 더 폭넓게 접근 가능한 명상 형태들이 해당된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색채가 거의 제거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급속한 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명상앱, 기업 명상교육, 학교 명상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글로벌 명상앱으로는 캄, 헤드스페이스, 인사이트 타이머 등이 한국에서는 필자가 개발한 하루명상 등을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업 명상교육으로는 구글에서 개발된 내면검색 프로그램(SIY; Search Inside Yourself)과 삼성의 영덕 명상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명상 프로그램 등도 좋은 사례이다. 학교 프로그램으로는 에모리대학교에서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보급되고 있는 씨러닝(SEE Learning)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저자들은 이후 제5수준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다. 지금은 미완의 형태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마 그 수가 점점 증가할 것이고 적용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한다. 제5수준에서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명상 분야에서도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빅테이터를 바탕으로 AI 명상이 본격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AI 기반의 명상앱을 들 수 있다. 사용자의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단계이다.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사용자의 생체 정보, 목소리 정보, 안면 정보, 셀프 체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개인별로 개별화된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AI 기반의 명상은 데이터에 기반할 수 밖에 없는데 국내는 그러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 분석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명상앱들은 이미 머신러닝을 장착한 후 초기 단계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앱들이 번역되어 국내에도 보급되고 있다. 전세계인들의 사용자 정보가 누적되면 이제 조만간 왠만한 명상 지도자보다 신뢰로운 AI 기반 명상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이제 수행하지 않고 실력이 없는 명상가가 설 땅이 점차 좁아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명상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반의 연구와 사용자 데이터 확보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에 음성복제 기술을 활용해서 30여개 문장을 읽은 후 필자의 목소리를 복제했다. 복제한 목소리로 2분 현존명상을 만들어서 가족과 회사 직원들과 같이 명상을 했다. 목소리가 조금 어색하다는 피드백은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필자의 목소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기술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있다. 명상의 국가경쟁력은 기술과 접목해야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명상 콘텐츠이 최대 강국이다. 기술만 접목하면 전세계 K-Meditation을 주도할 수 있다. AI 시대 명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필자도 그 대열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16 호 현대불교
2022년 12월 14일(음 11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들어오는것마다 오는대로 그냥 불바퀴에다 집어넣으세요

생활 참선을 한다는 것은

질문 요즘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조용히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생활 참선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답변 인간으로 살면서 혼자 못 산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발전도 하고 창조도 하고, 창조력을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죠. 내가 왜 꼬집어서 이런 말만 하느냐 하면, 최초의 근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돌아가는 것이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는 여러분 각자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기 때문에 인연 소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바로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가 끝 간 데 없이 '나'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각자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는고?" 하고 물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로 발전도 할 수 있고…. 이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우주의 근본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끌어 내려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법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 "어떤 것이 참선인가?" "생활 참선!" 여러 마디 거론되는 말을 쑥 빼고 지금 얘깁니다.

그래서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되놓아라. 되놓고 침착하게 관찰하라." 합니다. 그냥 일하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서 있으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참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을 '이것이 슬기롭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여기다.' 하고 놨을 때에 그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됐을 땐 감사하게 놓고, 그리고 진짜 나를, 진실한 나를 구할 때는 '참나가 있다는 증명도 거기서만이 해 줄 수 있다.' 하고 놓고 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때 바로 관찰하면서…, '관해본다' 그러죠? 그거를 '관찰'이라고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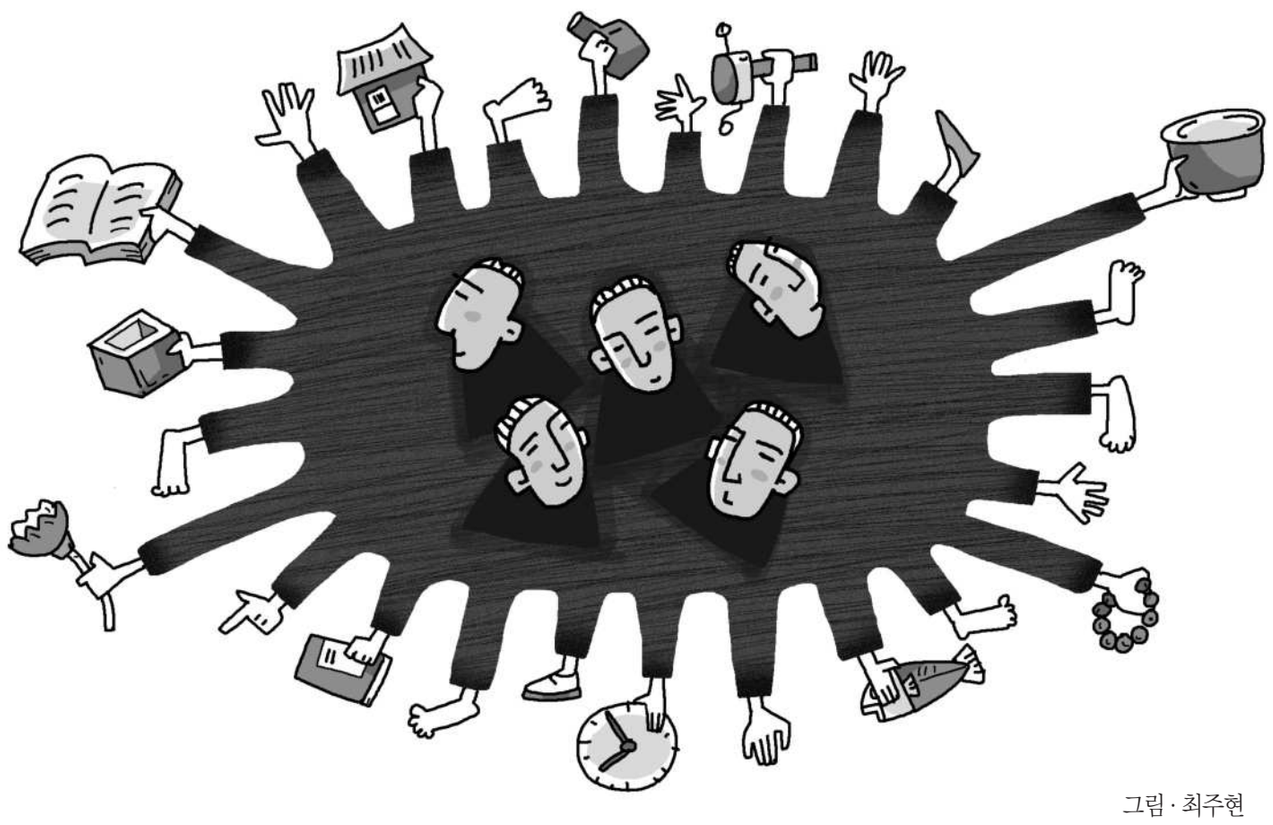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찰! 그러고서 또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진짜로 무조건 믿고 물러서지 않는 도리에 놓고, 그렇게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틀고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 아닙니다. 즉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고, 진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큰 것에서부터 조그만 것까지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놓고 관찰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게 뭣고?' 하고 열네 날 있어도 뭐는 뭡니까? 그냥 뭐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에 선지식들께서 표현하시기를 "수박을 놓고 이게 뭐냐고 아무리 돌려 가면서 봐도 맛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내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내가 체험을 해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참선입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하나 행하는 것을 좌선, 입선, 와선, 행선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생활 참선이라고 합니다.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자, 이 세상 돌아가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공안이 될 수 있고, 만물만생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도량이 될 수 있고, 내 앉은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찾아다닌다, 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경전을 들춰 본다고 해서 그 진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든 알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죠.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 절름뱅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는 50% 무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절름발이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 짝을 마저 일으켜 세우는 도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눈은 애꾸입니다. 눈 한 짝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한 짝을 마저 뜨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자리에서만이 일체 만법이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체험을 안 한다면 그건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모든 것을 습득을 해서 모든 관습을 놓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일인데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뭘 그렇게 알아야 하고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웠고 잘났고, 똑똑하고 못났고, 못하고 못 배웠고 이런 거를 몽땅 다 놓는 것입니다.

놓는 거라고 하니까 놓는 거에 또 걸리지 마십시오. 내 육체를 나라고 하거나, 내가 했다고 하거나, 내가 가졌다고 하거나, 모든 걸 나라고 일으켜 세운다면, 모두 둘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로 보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가 연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 녹질 않아요. 과거에 입력된 것이 살살 나오는 위에다 또 자꾸 업을 지어서 미래에 나오게끔 입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력되는 거는 미래에 가지고 나올 것을 미리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 아닌 저장이죠. 여러분이 그 업을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각자 자신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육을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 신을 두고 남의 신을 찾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신(自神)을 두고! 자신은 정신계에 속하고, 육은 현실계에 속하는 겁니다. 항상 육은 끌려다닙니다, 마음의 주인한테. 그러니 잘못 돌아가는 거는 거기다 되놓고 잘 돌아가게 해서 서로가, 누가 더 높고 얕음이 없이 상통하면서 같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는 같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유심(有心)에서는 도저히 정신계와 물질계가 한데 작용을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뭣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는 거지. 이게 틀리지, 이게 옳지.' 이런다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믿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따져야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따져 봤자죠. 그러니 '이렇게 해야 맞지, 저렇게 해야 맞지' 하고 자꾸 잔소리가 심하고 이론이 많아지고 그런다면 전자와 전자가 어떻게 마주 붙어서 불이 들어옵니까, 네?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려고 드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주먹만을 믿고 주먹에서 나오는 거 주먹에다가 도로 놓는 마음! 이 세상을 다 지닌 한자리, 그 주먹 아닙니까? 허허허.

부처도 먹고 들어가야 한다는데

질문 큰스님 법문 중에 가끔 부처도 집어삼켜야 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 22면으로 계속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되놓고 침착하게 관찰하라

☞ 21면에서 계속

답변 한계가 없는 걸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너 나가 둘이 아니고 산천초목,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든, 못났든 잘났든 바로 자기 영역에서는 높다는 거를 상징한 겁니다. 어느 집안에서든지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높다는 겁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렁이는 지렁이 소굴에서 높고, 거북이는 거북이 소굴에서 높은데 단,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높은 것을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것저것 탓할 게 없이 여여하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여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내놓은 것에 끄달린다면 한 걸음도 딛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다고 봅니다. 어느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왕위에 올라서서 일을 하다가 큰 종기가 났는데 앓다 보니까 몸뚱이가 아주 마르고 이제는 다 죽게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병문안을 오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업보가 될 것을 모르고, 죄업이 될 것을 모르고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라선 것을 참 한탄한다고, 앓아 드러누워 있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승에서는", 즉 얼른 쉽게 말해서 얕은 지위의 중생들은, "업보가 있겠지마는 당신은 업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업보가 없느냐?" 하고 물으니, "톱이나 도끼로 나무를 잘라 내고 그래 봤던들, 그 톱이나 도끼에 업보가 붙는 것 보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지금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얘기하신 건데, 문안을 드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굼벵이가 자기가 나올 때는 자기 어미를 탁 찢어 버리고 나옵니다. 독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랄 때는 자기 어머니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도 죄가 붙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 말끝에 홀연히 깨달아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 모두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에 그냥 먹었을 뿐이지, 그거를 먹었다고 해서 죄가 붙을 자리가 없구나.' 이거는 대승의 도리입니다. 대승이라는 도리도 없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붙을 자리가 없구나. 모두가, 너 나가 다 둘이 아니거늘 붙을 데가 어딨는가.'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왕위에 올라섰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물 한 방울에 다른 물 한 방울이 들어간다면 한 방울의 물이지 거기에는 두 방울의 물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냥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그건 마음의 도리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먹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도 먹고 들어가야지, 부처님이 삼라만상 다 둘이 아니게 한자리를 하고 계시고 모두 평등하게 집어 잡숴다면, 그 부처님의 골수를 집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어 먹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 도리를 공부해 나가는 이 수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형제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질문 저희는 삼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나면 서로 다투기만 하니 제가 맏형으로서 좀 무마시켜 보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화목한 집안을 보면 너무 부러운데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어떠한 살림을 살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있고 상대도 있고, 집안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첫째도 마음이요, 둘째도 마음이요, 셋째도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이 처음에 왈딱 일어날 때에 탁 놔야지 그게 벌어져 가지고 얽히고설킨 이후에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남이 언짢아할지 좋아할지 미리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 싸움을 붙이지도 않고 가정도 화목하게 가져올 수 있어서 아주 효과가 크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닥치는 일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애들하고나 가지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찰나찰나 닥쳐오는지…. 또 어떤 때는 즐거움도 닥쳐와요. 뭐, 어려움만 닥쳐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 그냥 어려운 일만 많이 닥치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놓으라고 했죠. 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 어려움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이니까 어렵지 않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되돌려서 맑은 물로 대치해서 쓰라고 하는 말을 수차에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생활하는 물질세계가 50%라고 한다면 정신세계가 또 50%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정맥 동맥이 같이 둘 아니게 돌아가듯,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같이 돌아가느니만큼 정신계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정신계로 돌아서 현실계로 나오는 거니깐요. 어차피 그렇게 돌아 나올 거라면 먼저 거기다 넣어서 돌아 나오게 만들어야죠. 용광로에다 헌쇠를 넣으니까 재생돼서 새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연탄도 부서진 거 갖다 넣으면 재생돼서 새로이 나옵니다. 방편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 안됐지만요, 하치 못한 방편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크나 작으나 방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을 숭배만 할 줄 알았지, 그리고 숭배를 합네 하면서 이만큼 고덩어리를 그냥 갖다가 집어넣고는 그거를 감해 달라고, 우리 남편 잘되고 자식 잘되고, 뭐, 일가친척까지도 모두 잘되게 해 달라고 그냥 잡다하게 빌 뿐인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모든 에너지가 흡수돼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나무는 태양열과 공기, 그 어떠한 에너지도 다 아래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야 물바퀴가 저절로 돌아가듯 샘물이 저절로 돌아서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 푸르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나무가 만약에 딴 나무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도와줄 줄 알고 딴 형상한테 빌고 딴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빈다면 거기서 에너지를 그리로 보내 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나무의 자기 뿌리만이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 공덕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생명들이 들어 있고,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요 향나무 이파리 같은 거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네 내면, 그 육체 안에 생명들이 각계각층 모습을 가지고 천차만별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수억 광년 전부터 진화돼서 바뀌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왔다는 증명서예요, 증명서. 내 몸뚱이가 증명서라고요. 그러니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를 배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커서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의 중간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세계예요. 중간에 서서 배를 타고 가는 셈이란 얘깁니다. 이 몸뚱이를 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중생들이 그 속에 잔뜩 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노를 젓고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울근불근해서 배가 뒤집히면 너와 내가 다 죽어요, 선장이고 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하고 선장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다스리면서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니 한 구멍에서만이 대치할 수 있다. 한 구멍에서 병을 내보냈으니까 한 구멍에서만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의 악업 선업이 영혼과 부착이 돼 가지고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딴 데서 오는 거라곤 없어요. 안의 악업 선업에서 좋고 기쁘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다른 데선 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일을 할래도 수없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잘되는 수도 있고, 해 보려고 하면 망하고, 허허허, 좀 살 만하고 조금 모였다 하면 다 나가고 하는 문제들이 말로는 다 할 수 없이 건건이 생기곤 하죠. 그것이 바로 선악업에서 나오는 까닭이거든요. 그러니 들어오는 것마다 불바퀴에다 놓으라고 하죠. 오는 대로 그냥 거기 집어넣어라. 그러면 타 버린다.

닥치는 대로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이지, 그냥 '아이그, 버리자.' 그러고 놓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게 했으니까 안 나오게도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고, 상황에 따라서 또 '너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네가 모든 걸 막아야 하지 않아?' 하고 또 놓고 '이것은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놓고, '너만이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놓고, 그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잘못됐다거나 잡혀갔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논다거나 건건이 말입니다. 장애인이 돼서 애로가 많은 집들도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식구들이 전부 애를 쓰는 집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다 대치를 해야 옳으냐는 겁니다. 우리가 시급한 게 지금 그거지 딴 게 있습니까? 내 몸과 가족들과,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 바로 내 성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속의 자생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제도가 돼서 보살로 화하게 되면 이 세상 물주머니, 공기주머니에서도 다 탁 트인단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그러니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내 탓이라고 돌리기엔 억울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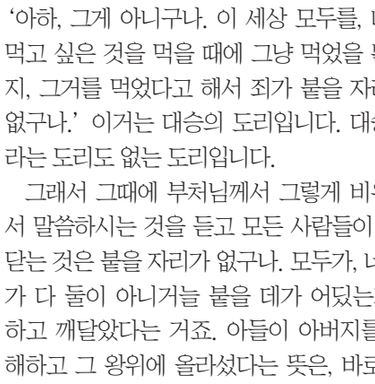
질문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게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닥치면 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확실히 뿌리박히게 다시 한번 가르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을 내고 막 악을 쓰고 그러다가도, 자기가 악쓰고 그런 새가 없는데 악쓰고 그랬다는 자체가 바로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게 남으면 그게, 즉 말하자면 악이 되고 업이 되고 그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깐 그 업이나 악이나 그런 거를 풍기지 마시고 이게 어떠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 탓이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탓이 아니지만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라 이거죠. 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식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그러죠. 자식이 막 나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집의 문을 깨뜨렸거나 이래도 그건 부모가 물어 줘야 하는 거죠. 그건 자식이 깨뜨렸다고 자식이 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물어야죠. 그리고 부모가 책임이고요.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모두가 자기, 제각기 다 자기 책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싸울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멋지게 싸울 필요는 있겠지만 멋지지 않게 싸울 필요는 없죠. 그리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싸우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런 소리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돈도요, 돈이 될 거라면 요렇게 그 집을 좀 들여다보면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게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러면 돈이 엄청 엉뚱나가게 생기는 수도 있죠. 그러니깐 이 물질도 다 말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안다는 얘깁니다. 우리 사람만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 틀고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 아닙니다.
> 조그마한 거든지 큰 거든지 내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 내가 체험을 해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그것이 참선입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어싱슈즈 블랙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논단 |

연말연시, 안녕하신가요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코로나 이후 거센 사회변화
일상의 삶 팍팍하게 만들어
주변 돌볼 '여유' 가질 시간
한숨 내려놓고 '쉬어 갑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
모든 생명의 '소중함' 일깨워
우리의 목적지, '더불어 행복'
생명이 함께 행복한 연말되길

연말연시다. 지금쯤이면, 잊고 있던 친지도, 잊고 있던 친구들도 번호를 찾아서 안부를 묻고 덕담을 건네는 것이 우리네 풍습이다. 필자도 우리 불자님들에게 묻고 싶다. 댁내 평안하신지요? 혹은 무탈하신지요? 라고 말이다. 유독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던 한 해이기에, 불자님들의 가정에 신상에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건네고 싶어서이다.

코로나19 시대가 겨우 진정되나 싶었더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우리 일상의 삶에 미친 여파가 거푸 닥쳐온다. 게다가 미국발로 시작된 금리인상이 우리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의 인사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지지 않을 수 없는 연말이고 연시인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주변에 대한 관심이 간절해지는 때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의 첫 번째 도리인 고성제를 풀면 '인생은 고통스럽다' 라고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다. 좀더 찬찬히 고민해보면, 반드시 고통스러움만으로 얼룩진 것이 인생은 아닐진대 부처님은 왜 삶의 장면들에 대해 '일체개고(一切皆苦)' 라고 표현하셨을까? 분명 고통에 겨워 힘들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테다.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직시하고, 그 직시한 고통의 원인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일구어내라고 하신 말씀일 테다.

우리는 올해 또 한 해를 떠나보내는 막바지를 맞이한다. 숨 가쁜 일상 속에서 또 바쁜 마음을 더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을 한국 사람이기에, 지금 이 연말이라도 한 숨 내려놓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쉬어서 쉬엄쉬엄 갑시다!"

이 글을 읽는 불자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주변의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 말을 공유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연말 한 달쯤은 쉬엄쉬엄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가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찬찬히 틈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억지로라도 낼 때가 아닌가. 연말이니까 말이다! 평소에는 바쁜 핑계라도 대었지만, 바쁜 핑계라도 접어두고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척해도 이상하지 않은 연말이니까 말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모든 생명들의 가장 고귀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이기에, 그 생명들은 남김없이 모두 행복해야 한다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지를 종종 혹은 잠깐 잠깐이 아니라 늘 잊어버리고 산다. 지금이라도 부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되새겨, 잊어버리고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어 보자. 연말이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에는 다들 그러니까 말이다.

고귀함을 일깨우는 것,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내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바라고 있듯이, 그들 다른 생명 역시 나의 관심을 기다린다. 우리가 '바쁘다' 는 일상의 핑계를 잠깐만 멈추고, 전화 한 통 걸어서 "안녕하신지요?"라고 물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 한 통의 전화가 관심의 표현이고, 소중함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올 연말연시에는 이제는 일상적이 되어버린 채팅 말고, 관심을 보여주지 못한 소중한 이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내가 소중히 여긴다' 는 말 한마디 남보다 먼저 나누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함께 행복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불자들에게 요구하는 목적지니까 말이다. 그래서 필자도 우리 불자님들께 먼저 여쭙고 싶다.

"안녕하신지요? 평안하시지요?"

社 說

조계종 제9대 교육원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 취임식이 12월 7일 열렸다. 이날 혜일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출가자 증대' 를 꼽았다. 그러면서 스님은 미래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출가 정신을 바로 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과 군장병 등 미래 세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출가자의 수행 정진이 시대를 선도하는 진리의 등불이며, 진정한 대자유의 길임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는 '출가 절벽' 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유지했던 한해 출가자 150명 선이 무너졌고, 코로나19 이후에는 1년 출가자 수가 100명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는 10년 후에는 당장 종단 행정과 교육, 포교를 담당한 스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눈 밝은 선지식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승가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의 책무는 막중하다. 출가 절벽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출가 증대 종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시대에 맞는 승가교육을 통해 명안종사를 배출해야 한다.

특히, 출가자 증대 종책은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포교원이 함께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통을 통한 출가 홍보뿐만 아니라 현재 출가 문화가 현대인에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가자들이 잘 안착할 시스템을 만들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승가교육기관 개편도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제9대 교육원이 "수행하는 승가, 함께하는 승가, 미래를 여는 승가의 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자비나눔 대정정에 불자 정성 모이길

전국 사찰과 불교계 복지관에서 경제한파 속에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와 따뜻한 방한물품 전달을 이어가고 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사부대중의 자비나눔 온기로 훈훈하다.

최근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는 직접 만든 8000kg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지역 내 소외이웃에 전달했고 강남 봉은사는 첫눈이 내리는 가운데 400여 대중이 1만 포기 김치를 담궈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2만 4000포기 김치를 전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겨울나기 나눔활동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교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 실천으로 나눔을 받는 이나 하는 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화두로 대두된다. 지자체마다 소외이웃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함에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년 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나눔문화 또한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외이웃은 더욱 증가하고 있기에 종교계도 앞장서 주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웃사랑은 가진 자의 전유물일 수 없다. 기업체에서 벌이는 대규모 기부도 중요하지만 십시일반 정신의 힘이 더 큰 법이다. 다함께 자비를 나눌수록 그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잡보장경(雜寶藏經)에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는 말이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임인년 끝자락서

임인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회한으로 얼룩진 한 해를 돌아보니 주역의 마지막 괘 화수미제(火水未濟)가 떠오른다. 촛불의 불꽃은 위로 타오르고 촛물은 아래로 떨어지는 염상누수(炎上漏水)로 더는 환하게 빛을 밝힐 수 없다.

화수미제는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형상이다. 그리고 미제(未濟)는 '아직 건너지 않았다' 는 뜻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의미다.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과 불이 만나지 못하면 생명은 순조롭게 생성될 수 없다. 〈열반경〉이 설하는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 으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해 영원히 덧없다.

세상은 수승화강(水升火降)으로 수화기제(水火旣濟)가 돼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속의 물기운은 위로,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수승화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불은 밑에서 물을 끓일 수 있고, 물은 위에서 불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심장의 불기운이 하강하고, 신장의 물기운이 상승하면 수승화강으로 심신(心腎)이 서로 통하여 신체가 건강하게 된다.



그림 · 최주현

머리는 차갑게 하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옛말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차가워야 할 머릿속이 뜨겁게 불타오른다. 번민과 고뇌와 망상의 불꽃이 일렁거린다. 시기와 협잡과 망언의 불꽃이 넘실거린다. 욕심과 불만과 애욕, 탐진치(貪瞋癡)의 불이 타오른다. 배에도 불이 붙고, 가슴에도 불이 붙고, 머리에도 불이 붙었다. 인간 자체가 화택(火宅)이 되어 몸과 마음이 활활 불타고 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다. 누가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지옥불이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불붙은 마음으로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영원토록 매캐한 매연 속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콜록거려야 한다.

불난 집의 불을 꺼야 한다. 화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마음의 불을 끄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생멸멸이 적멸위락(生滅滅已 寂滅爲樂)' 이다. 생멸을 벗어난 기쁨의 세계다. 수승화강이 되면 생사에 자유로운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승화강을 이룰 수 있을까? 뜨거운 머리를 차가운 물속에 담그면 되리라. 물속에는 머리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담그면 몸이 저절로 뜨게 된다. 물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에 내 마음을 푹 잠기게 한다는 그것이다. 해인삼매(海印三昧)에 들어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한 해가 저물었다고 한탄하지 않고 새롭게 솟아오를 계묘년(癸卯年)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국제 합동 보살계 금강계단 대법회

세계승왕 정상회의 평화포럼

제2회 세계붓다 평화봉사대상 108명 수상

한국불교사상 최초의 장엄한 야단법석
7억 세계불교도 염원과 서원 함성이 이곳에 있었다.
11월 12일 국회 대법회서 부처님 나투시어 광명의 빛 내려 비추었도다.



※ 코로나19 자국봉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참 5개국 전권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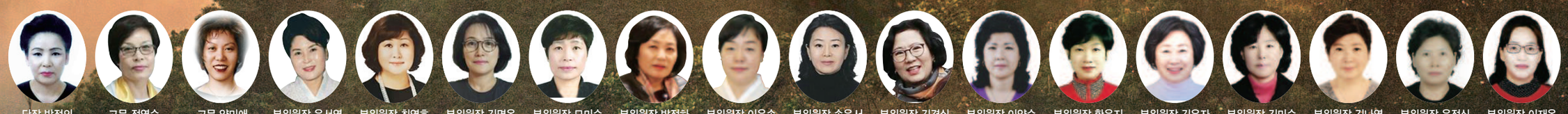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종사 법원 | 대종사 법성 | 대종사 월암 | 대종사 현담 | 대종사 심오 | 대종사 자운 | 대종사 법장 | 대종사 법륜 | 대종사 법성 | 대종사 법운 | 대종사 현경

기획원장 대공 | 명사 대도 | 명사 정인 | 명사 청명 | 명사 일연송운 | 명덕 백련 | 법왕청봉사재단 | 경호원장 고동욱 | 의전원장 해탈심 | 의전2원장 보현수 | 의전3원장 청정행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단장 박정의 | 고문 정영숙 | 고문 양미애 | 부위원장 윤서영 | 부위원장 최연호 | 부위원장 김명옥 | 부위원장 모미숙 | 부위원장 박정하 | 부위원장 이은숭 | 부위원장 송윤서 | 부위원장 김경실 | 부위원장 이양순 | 부위원장 황은지 | 부위원장 김유자 | 부위원장 김미숙 | 부위원장 김나영 | 부위원장 윤정심 | 부위원장 이재옥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 사명으로
지구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울고 웃은 43년. 땀 흘려 봉사하는 발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

음성공양과 육법공양 올리며 국내외 봉사로
7억 불교도 이끄는 '세계불교법왕청'이 불자들의 참여를 절실히 바랍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신영빌딩 303호 02-733-5665 010-3618-6061